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겸 주간 한덕규
편집장 이현재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 대 학 보 ☎961-4152, 961-4183(FAX겸용)
학생기자실 ☎959-6574,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보현면 왕산리 산89
인쇄인 김상영

창간 1955년 4월11일 【주간】
등록번호제 다253호
THE OE DAE HAGBO
제634호 1994년 11월 8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 급인가

교수 실적담은 연구총서 발간돼

교수 실적 공개와 평가 기초자료 역할

연구업적 대중적 공개

본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수록한 교수연구업적편람(업적편람)이 발간된다. 이번 주중 발간될 예정인 업적편람은 본교 학문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시행될 교수평가제의 기초적 자료로서 발간자체가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업적편람 발간 주관부서인 연구협력처는 △외대 연구 활성화와 분위기 조성 △연구비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서가 창설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본교 재직교수의 연구업적을 조사(91년부터 93년까지의 연구업적만을 수록), 이번 주중 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업적편람은 교수 1인당 저서·역서·논문을 게재하는 형식으로 돼 있으며 이 기간동안 연구업적이 없는 교수는 실리지 않았다. 업적편람이 발간되면 그동안의 교수 연구업적이 대중적으로 잘 공개되지 않았던 이전의 현실에 비해 보다 공정한 교수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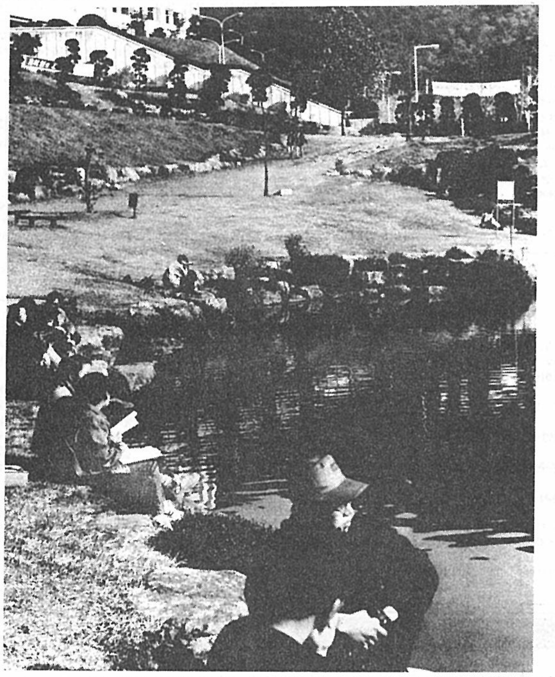
이와 관련, 업적편람 발간을 추진한 최영수 연구협력처장(포르투갈어과 교수)은 "연구는 대학의 중요한 기능이며 또한 교수의 생명이다"라며 교수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UR 이후 자구노력이 없는 대학은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대학당국이 세운 외대발전 5개년 계획안에 보면 '교수업적의 객관적 관리제도를 확립한다'는 취지아래 △업적편람 발간 △이를 연구장려(incentive) 제도에 활용한다라는 규정과 '교수의 연구활동을 증진시키고 경쟁적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유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명제아래 △대학연구비 확충 △연구업적에 따라 연구장려금 우선분배와 해외연수·파견연구기회 확충 등의 항목이 있어 앞으로 업적편람이 대학당국에 의한 교수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활발히 추진될 지역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관련학과 교수들간의 상호협력시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협력처는 업적편람을 5백여부 정도로 발간, 각 교수와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도서관, 단대 교학과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이승호 기자>



외대의 가을은…

가을도 막바지에 들어선 요즘, 새로운 결실을 맺으려는 외대인의 모습은 원숙미를 보듬어 안고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고 남은 기간 더욱 새롭게 살 것을 다짐해야 할 때다.
한 해를 정리하는 학생회 선거철이다. 지난 1년을 평가하며 그 속에 대안을 찾아보려는 건강한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이제 왜곡되고 일그러져 비쳐보이는 하늘을 잊자. 그리고 고갤들어 푸르른 하늘을 보자.
<박종선 기자>

용인 총학 선거 16·17일

기호 1 이희진·김병준 조

기호 2 정석민·임성은 조

내년 용인캠퍼스 학생회를 이끌어갈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제16대 총학생회 선거가 11월 16일(수)·17일(목) 이틀에 거쳐 실시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선 본격적인 선거준비가 한창이다.

후보자는 사회대 학생회장 이희진(경제·4)군과 서양학대 학생회장 김병준(노어·4)군이 9백 87명의 추천으로 기호 1번, 정석민(동학·마인어 4)군과 임성은(동학·아랍어 3)군이 6백명의 추천을 받아 기호 2번으로 출마한다.

지난 1일(화)엔 선거운동원 모집이 시작됨과 동시에 앞으로 선거일정이 확정 공고됐다.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8일(화)—언론협의회 소속 기자들과의 간담회

△10일(목)—1차 유세(오후 3시 학생회관 앞). 언론협의회 정견토론회

△15일(화)—2차 유세(오후 4시 학생회관 앞)

<곽근영 기자>

빈의자

치정과 파라독스(?)

▲필자가 듣는 신문방송학 수업중 아직도 기억에서 지워지지않는 인상깊은 강의가 있다. 잠시 그 얘기를 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1945년 미국이 핵폭탄을 투척한 후 일본의 오키나와 섬을 요구했고 60년대쯤 돼서야 일본은 그 섬을 되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거액의 댓가를 치뤄야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이를 국민적 감정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니치 신문의 한 기자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외무성을 오고가며 그 비밀을 캐냈고 공개했다. 훌륭한 기자정신이었다. 하지만 재판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기자가 외무성의 한 여직원과 치정관계를 의도적으로 맺고 국가기밀을 훔쳤다는 것이다.

정을 통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취재방법이 아니었다는 검사측의 논리는 올바른 기자정신을 왜곡하는 방안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것이 올바르던 그렇지 않던 간에 앞뒤가 전도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대학보가 70여일만에 다시 발행됐다.

제작이 중지된 직접적인 이유가 '성적'이라는 치정관계로 묘사됐다. 허나 우리는 이 기자의 훌륭한 정신을 막으려는 세련된(?) 의도를 본다. 그러기에 백번 양보해 검사의 기소를 받더라도 노골적으로 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싶은 것이다.

▲두 친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가'라는 친구는 '나'에 대해 "너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고 말했다. '나'는 '가'에게 "너 말은 모두 참이다"했다고 하자.

이 얼마나 모순된 논리인가?

"뭐가 문제길래 신문이 정상적으로 발간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곤했다. 이 질문의 해답을 구하는 데 필자 역시, 위의 파라독스를 해석하고자 과거 소피스트 학자들이 앓았던 위궤양과 두통으로 고생했다.

어쨌든 본교의 역사성과 기록성을 살리지 못하는 오랜 진통끝에 학보는 새롭게 태어난다. 공백기간 동안 답답해하면서도 안타깝게 지켜보며 도와주던 학우들에게 죄송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대학신문은 기성언론과 달리 저항의 역사였다.

그런 반작용이 있었기에 우리는 정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치유해야 할 아픔이 너무도 많다. 하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배출하는 지성의 전당 대학사회의 언론이 상처를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갈팡질팡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옥선>

'외대 40년사' 출간 눈앞에

역사상 최초·자긍심 고취

오는 15일 예정

외대 40년의 삶을 엮은 역사책이 발간된다.

오는 15일(화)경 발간될 예정인 '외대 40년사'는 단순히 40년 외대의 발자취를 기록한다는 의미외에도 외대인의 자긍심고취, 동문간의 유대의식 강화등 많은 의의를 내포하고 있어 외대발전의 첫걸음이라 말할 수 있다.

7백 60페이지에 달하는 '외대 40년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발전, 대학기구, 학생활동, 자치기구등 총4부로 구성돼 있으며 권두에 안병만 총장의 논문과 연표가 수록됐고 부록으로 재단 이사진, 감사, 전현직 교수, 직원명단등이 기록돼 있다. 제1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발전부분은 본교역사를 본교의 발전과 시대상황을 고려해 외대의 요람기, 성장기, 확장기, 새로운 도약기 등 4단계로 구분해 편년사체로 기술됐다.

'외대 40년사'는 지난 1992년 12월 '교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영호 교수, 불어과) 구성이후 1년 11개월만에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초 올해 4월 개교기념일에 맞춰 발간하기로 했으나 자료수집등의 어려움으로 9월 10일 '외대인의 날'시기로 연기됐다가 또 연기돼 이번에 편찬되게 됐다. 2번씩이나 발간일정이 늦춰진 것에서 알 수 있듯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역사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필을 맡은 정진석 교수(신방과)는 발문을 통해 "인력의 지원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자료도 없었다. '외대학보'가 유일한 자료원이었다. 집필과정의 애로는 구차하게 나열할 마음이 아니다"라며 집필 과정상의 어려웠던 심정을 밝히고 있다.

편찬 작업은 각 학과, 대학본부로부터 기초자료를 수집해 교수와 직원 개개인의 재직 경력까지 원고를 쓰면서 컴퓨터로 입력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사편찬준비작업은 1971년 11월 '사진으로 보는 외대 18년사', 1978년 '외대 25년사' 등 몇번 진행됐으나 그때마다 자료수집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번번히 발간되지 못했다.

안병만 총장은 '창학정신과 우리 대학교의 미래'라는 주제의 권두논문을 통해 "외대인이 학교에 대한 참다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아가 외대의 현실과 가능성을 점검하여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는 계기 마련"이라고 교사 편찬이 갖는 의의를 밝혔다.

<이현재 기자>

지·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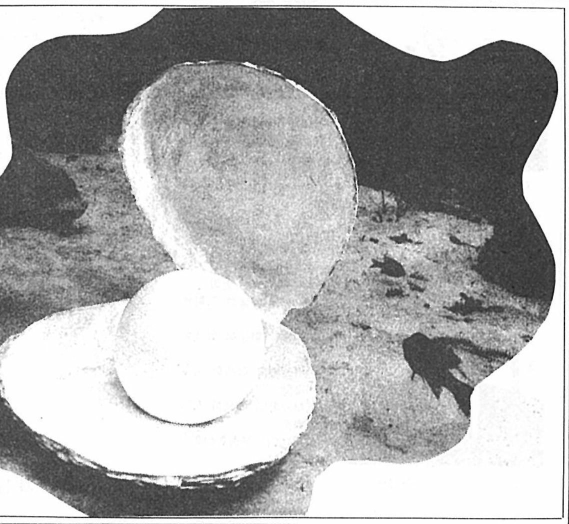
3면
노천극장 공사 점검
4면
북한경제의 현황과 대외개방 정책
6면
좌담 : 대학신문의 위상과 역할 점검
8면
서울대, 연세대 총학 평가
9면
주사파발언이 학생회 선거에 미치는 영향
10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 전망

이제 다시 책가방 속에
외대학보를 챙기십시오

너무나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상처였습니다.

외대학보를 외대인에게 안겨주지 못한다는 것은…
제작중지 70여일의 시간은…
그러나
이제 다시 책가방 속에 외대학보를 챙기십시오.
단단한 껍질을 열고나온 진주처럼
튼튼하고 귀중한 보석같은 신문이 되겠습니다.

외 대 학 보



외 대 학 보

제634호 1994년 11월 8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사 설

학생회에 가해지는 성적조항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자율권이 점차 위협당하고 있다. 지난 주 학교당국이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및 각 단대 학생회로 보낸 공문을 보면 과·단대·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필히 성적이 평점 2.0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이미 사문화된 학도호국단 시절의 학생회칙 제 44조이다. 이 같은 학교측의 공문의 본질은 뻔하다.

학생회는 명백히 학생들의 자치조직이다. 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뽑는 학생회장을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거부할 권리가 있는가. 그럼 왜 학교당국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이 학생회장이 될 권한이 있다고 우기는가. 누구나 짐작하듯이 중간·기말고사로 일률적으로 매기는 점수가 낮은 사람은 학보사 기자도, 학생회 일꾼도 될 수 없다는 것은 '학생들의 자치권'탄압의 치졸한 빌미밖에 될 수 없다.

지금까지 본교의 학내 민주화과정에서 학생자치권이 탄압받아온 역사는 찬란하다. 60년대에는 학생회장이 학교측으로부터 구타당하고 심지어 강물에 버려지는 직접적인 폭력이, 유신과 군사독재 시대에는 '학도호국단'이라는 어용학생회를 만들어 학생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탄압했다. 그리고 올해도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검거되는등 학생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하자 여지없이 '성적'이라는 사슬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

곧 서울캠퍼스 각급 학생회에도 예의 '괴공문'이 날아들 것이다. 물론 그냥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학원의 주인으로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당국이 조금씩 빼앗으려고 하는 학생자치권을 수호하려는 결의가 필수적이다.

역사가 퇴보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청산 못한 과거의 후유증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지존파와 온보현 사건, 성수대교 붕괴참사 등 한국 땅에 발딛고 사는 국민을 초라하게 만든 일련의 사태는 과거 이 사회가 얼마나 빈껍데기 성장을 해 왔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박정희정권 시절 대충대충 밀어붙이기식 개발독재, 5·6공의 살벌한 부정부패, 그리고 절름발이식 자본주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황금만능주의와 인명 경시풍조 등으로 인한 위의 사태들은 선진국의 부푼 꿈에 찬 국민들에게 '과거의 악몽'을 되심어주고 있다. 여기서 '과거청산'이라는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깨우치게 된다.

'과거청산'의 과제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며 해결하지 않은채 밀어붙쳤던 현정권의 개혁이 얼마나 부실개혁이고 보여주기식 개혁이었는가를 일련의 사건들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현정권은 이런 역사적 심판의 쓴 맛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듯 하다. 하루아침에 서른 두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1년에 17만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기형적 사회구조를 유도했던 과거 정권을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화해의 손을 뻗치는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요즘 구여권 세력이 다시 뭉치고 있다고 한다. 박정희 추도위원회에 과거에 날렸던 인사들이 모여 박정희시대를 그리워하고 있고, 또 이들을 중심으로 신당이 창설된다는 애기도 공공연히 들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영삼정권은 12·12쿠데타의 반란수괴와 그 모의자들에게 기소유예라는 면죄부로 화답하고 있다. 진정, 역사는 회기하는 것인가?

지금의 시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항상 내세웠던 특유의 '자신만의 결단'이 필요하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보수세력의 힘을 받는 당장은 수세적 국면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질곡에 부딪칠지 모른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싹이 언제, 어디서 불거져 나와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훕산의 소리

외대인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고 싶습니다

진실된 삶, 함께 하는 삶을 소망하는 외대인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여기에 싣고 싶습니다. 원고지 2~7매에 그 목소리를 담아 매주 금요일 오후5시까지 본보 학생기자실로 가지고 오십시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직원 실명제를 제안하며

근무태만 지적 아닌 책임행정의 떳떳함 돋보여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제모습을 잃어가고 있는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이 대학답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중에서도 학원의 3주체간의 불협화음은 그중 가장 큰 요인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학생들과 가장 많이 접하는 교수이외에 직원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직원과 학생의 관계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이러한 서비스의 수혜자의 관계이다. 하지만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커녕 직원이 학생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은 이제 당연한 모습으로까지 보인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친절한 직원을 접하면 황송할 정도이다.

학생들을 대하는 직원의 일상적 언어는 좀처럼 존칭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은 성인사회이다. 서로 인격과 인격간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불친절의 문제는 단골메뉴처럼 학내의 문제로 되어온 실정이고 보면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직원 실명제'를 제안한다.

직원은 모두 자신의 이름표를 달고 근무하며 자신의 책상앞에도 직위와 명패를 부착하여 놓아야 한다. 이는 어느 직원이 불친절하고 근무가 태만한가를 따지자는 의도보다는 자기의 이름으로 책임행정을 하는 떳떳함과 성실한 직원의 모범을 따라 배울 수 있는 기능면에 더욱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하소연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조건을 이유로 든다면 대학원에 위치한 제일은행출장소의 예를 들고 싶다. 제일은행출장소는 직원의 인원에 비하면 그 업무량이 과중하며 근무환경도 매우 비좁다. 하지만, 누구 한사람 학생들에게 존칭을 쓰지 않는 일이 없고 오히려 더 친절하다. 과연 외대의 교직원은 어떠한가?

만약 직원사회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문제는 타율적 해결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방학진<법·법학 4>

낭비 심한 학내자판기 성실한 관리 요구돼

왕산의 겨울은 유별나게 춥다.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차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기 마련이고, 부지런해서 보온병에 차를 타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동전 몇개도 따뜻해질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찾게 된다.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 10월이 넘어서면서 자판기 앞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면을 심심치않게 보게 된다.

그러나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 탓일까? '어느 곳의 어느 자판기'라고 할 필요도 없이 대부분의 자판기에서 물만 나오거나 물과 크림만 나오고 있다. 그나마 '판매중지'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자판기는 양반(?)이고… 이런 '부실한' 자판기 옆 쓰레기통에는 채 쓰여지지 못하고 버려진 종이컵이 차를 마시지 못하고 동전만 낭비한 피해자(?)들의 원망처럼 수북히 쌓여있기 마련이다.

물론, '그깟 1백원짜리야'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일일수도 있다. 하지만 자판기를 담당한 사람의 사용자를 생각하는 마음과 맡은 일에 성의를 다하는 마음이 조금만 더 앞선다면 종이컵과 동전의 불필요한 낭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박세환<동학·마인어 1>

언제나 그렇듯이 언제나 안일하게!

—부지런이—

백지 대자보

주제 : 성수대교 '폭삭'에 외대인의 한마디

다리가 그렇게 약하니까 내가 남자구실을 잘 못하지
—03—

성수대교는 숏다리였다.
—불어과 숏다리—

그래, 내다리 숏다리다.
—성수—

무너진 다리에 받혀 죽은 물고기 불쌍혀!
—생선장수—

쯧쯧, 그러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니까…
—동아건설 대빵—

….
(죽은자는 말이 없다)
—무학여고 피해자 일동—

황당!
—황당이—

저러다가 한강다리, '도미노'되는거나 아닌지 몰라
—93, 히히—

청와대 지붕위에 다리 만들자
—탈영병—

성수대교 폭삭, 자본주의 폭삭
—유물론자—

성수대교 폭삭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강다리가 무너지는 두번째 기적이었다.
—일본 기자—

□독자사진

한국 외국어고등학교(?)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가 줄을 잇는 가을이 되면 서울캠퍼스 학생들은 다른 대학처럼 실내체육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사진은 지난 9월에 열린 핸드볼 대회경기중.

윤고은<정책·신방 2>

□양동훈 남총련 의장 연행을 보고

문민정부에서 학내 권총 사용이라니…

며칠전 하이텔을 통해 제2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및 남총련 의장 양동훈(조선대 총학생회장)군이 지난 5일(토) 경찰에 연행됐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양동훈군을 연행할 당시 권총을 사용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것도 학내에서.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우리가 과연 90년대에 들어선 문민정부에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 됐다.

우리는 지금 90년대를 살고 있다. 늘 선진국 문턱에 다가왔다고 떠들어 대면서 말이다.

하지만 성수대교 참사·각종 강력 범죄들·인천 세무 비리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90년대에 사는 우리들을 부끄러워 하게 되었다.

여기에 다시 이 소식을 접하자 70년대 유신시대, 80년대 군사독재시절로 우리 자신이 회귀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지난 뜨거운 여름에 있었던 공안의 회오리 바람을 아직 잊지 않고 있다. 그것도 남총련을 집중 타켓으로 마구잡이로 탄압하는 행태들도 지켜 보았다. 이 사건도 그 탄압의 연장선으로 남총련이기 때문에 권총을 사용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젠 더 이상 이런 슬픈 소식들이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이 들리는 문민정부에서 살고 싶은 것이 바램이다.

전예현<사범·영교 2>

□구속된 최진선 총학생회장을 생각하며

더욱 튼튼한 학생회 이룩해야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가운 왕산의 아침.

곳곳의 게시판에는 선거를 알리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과학생회에서부터 총학생회까지 차기 학생회의 정형을 꾸려 보려는 의욕있는 학우들의 열기로 부쩍 서늘해진 왕산이 부산하다.

몇발짝 훨씬 앞서가는 왕산의 날씨덕에 벌어진 옷깃을 여미다 문득 떠오르게 되는 얼굴이 있다.

최진선 총학생회장. 동기이기에, 더우기 같은과 동기이기에 마음 한 켠이 더 무거워지는 것일까?

지난해 이맘때 우리는 학생회 건설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가 뽑은 학생회를 우리 손으로 도중하차 시키고 예년보다 일찍 치뤄졌던 학생회 선거였기에,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로 참으로 부산히도 뛰어다녔다.

그때 우리 손으로 뽑아 총학생회장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진선이 그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은 우리곁에 없다.

국가보안법. 헌정이 시작된 이래, 아니 그 이전 일제시대부터 양심을 지키며 세상을 용기있게 살려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그 법으로 그 사람이 갇히었다.

우리 과에서도 그의 출신 과이기에 동기들을 중심으로 '후원회'도 꾸리고 이틀동안의 주점도 꾸리면서 그를 돕고자 했다. 지속적인 면회도 꾸려 내면서….

이제 다시 선거다.

정말로 튼튼하고 학생회다운 학생회를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인 것이다. 진선이 생각이 유난해 진것은.

모성훈<인문·사학 3>

등록금 인상률 15% 한자리수로 낮춰야

'내년 사립대학교 등록금 인상률 15%'

버스를 타고 가다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으니 이러다간 내가 졸업 할때쯤이면 등록금 5백만원은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내년 3월이 두려워진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대학교 등록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나같은 사람에겐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또 떠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낸다 해도 과연 내가 학교에서 등록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선 1년동안 대학생활을 하며 회의적으로 느끼게 됐다. (굳이 쓰지 않아도 다 알것이라 믿는다.)

내년에 내가 소박하게 바라는 희망은 등록금 인상률이 한자리 수로 낮춰지거나 아니면 등록금 낸 만큼 학교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다.

김근환<사회·무역 1>

제16대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약력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1

이희진 <사회·경제 90>

70. 경북 경주 출생
90. 포항고 졸
 본교 경제학과 입학
 과대표 역임
91. 1학기 사회대 학생회 사회부장, 2학기 사회대 학생회 선전부장
92. 경제학과 학생회장
93. 사회대 학생회 사회부장
94. 사회대 학생회장
 제16대 총학생회장 입후보

김병준 <서학·노어 89>

71. 서울 출생
89. 대전 대성고 졸업
 본교 노어과 입학
91. 노어과 학생회 기획부장
92. 노어과 학생회 학생회장
93. 서양학대 학생회 사무국장
94. 서양학대 학생회 학생회장
 제16대 부총학생회장 입후보

1. 왕산 6천학우와 함께 가는 백두산 통일기행
2. 가칭 '95 통일맞이 왕산인 모임 건설로 다양한 통일행사 마련
3. 장기적으로 교양과목 발전을 위해 각계 각층 전문인사의 교양강좌 실시
4. 교수님과 함께 '외대학술진흥위원회'를 거교적으로 구성, 외대학문 발전 이룩
5. 왕산 전 과를 연결하는 학내 전산망
6. 등하교 교통문제는 물론 카풀제와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학내 교통문제 입체적 해결
7. 35개 과학생회, 동아리 7개분과 교비책정
8. 위성안테나 설치로 세계의 정보를 수집,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매주 수요일, 과 학생회와 총학생회와의 만남으로 살아 숨쉬는 학생회 운영

기호 2

1. TOEFL 특강 개설 등 학술문화 행사 (11개 사업방안 마련)
2. 각 건물당 2대이상 공중전화기 확보 등 전화기 증설(5개 〃)
3. 도서관 열람실 좌석확대 및 도서구입 확대(16개 〃)
4. 캠퍼스 조경사업 실시 (14개 〃)
5. 자연계열 입지 강화 사업 (11개 〃)
6. 국제화, 정보화 및 취업대책안 마련 (12개 〃)
7. 교수순환제 폐해극복 등 교육내용 강화 (13개 〃)
8. 장학금 증액 등 교육환경 개선 (10개 〃)
9. 서점확장, 가격인하, 은행유치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 (20개 〃)
10. 기숙사, 모현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식당 개선안 등 160여 사업방안

정석민<동학·마인 90>

69. 경남 마산 출생
82. 마산 산호국교 졸 (학생부회장 역임)
88. 마산 중앙고 졸
90. 본교 마인어과 입학
92. 민중대통령 추대를 위한 대선 준비모임 선전부장
93. 검도부 가입
94. 공개 초청 강연 추진
 제16대 총학생회장 출마

임성은<동학·아랍 91>

72. 경남 의경 출생
85. 지정 국교 졸(학생회장 역임)
88. 지정 중학교 졸(학생회장 역임)
91. 창신고 졸
 본교 아랍어과 입학
92. 외대학보 입사, 대학부장 역임
94. 제16대 부총학생회장 출마

일시 : 1994년 11월 16일(화), 17일(수)
장소 : 각 단대 건물
＊왕산인으로서의 주권을 꼭 행사합시다.

제16대 총학생회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

W제도 첫 실시돼

운영 원활·편의 도모해야

지난 1학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대학당국과의 합의에 의해 마련됐던 수강신청취소(Withdraw)제도(W제도)에 의한 학생들의 수강신청 취소가 지난 10월 9일(화)부터 14일(금)까지 진행됐다. 양캠퍼스 모두 합쳐 6백 93명의 학생들이 신청했던 과목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W제도는 해당학기 초에 신청했던 수강과목을 개인사정, 기타 다른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학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대학당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재수강시 Bo까지의 학점제한 철폐가 논의될 때 같이 거론됐으며, 학점제한 철폐와 W제도 인정 요구를 대학당국이 받아들여 올해 2학기부터 실시되고 있다.

한편 수강을 취소할때 지정된 서류양식에 따라 담당교수와 학과장 교수의 확인후 해당 교학과에 제출하기로 규정돼 있으나, 홍보가 미흡해 '확인'을 교수의 도장으로만 생각해 도장을 지참하지 않은 교수의 과목은 취소를 하지 못해 피해를 본 학생들도 있었다. 수강신청 취소를 하려면 담당교수를 꼭 만나야 하는데 수업시간에 도장을 갖고 오지 않은 교수의 확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정영윤 교수(교육학 담당)는 "도장이 아니더라도 담당교수 확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싸인도 무방하다"라고 해명했다.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4학년을 제외하고 최소 12학점 이상 수강신청한 학생만이 가능한데 대학당국은 그 이유를 "정상적인 졸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취소된 과목은 성적표상에 W(취소)로 기재되며, 평점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은 "W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며, 기존의 출석미달 처리를 일괄적으로 F학점 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을 입는다"라고 밝혔다.

91년 교육부에 의한 학원안정화대책이 본교에서 실시되기 이전 있었던 W제도는 출석미달과목을 평점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된 W제도는 축소실시돼 본래 학생들이 요구했던 것과 거리가 멀다는 평이다.

이와 더불어 W제도를 본인의 출석미달로 인한 F처리를 무마하고자 이용한다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었다. 다시 말해 좋은 성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학기 처음 실시된 W제도는 그 원래의 기획의도와는 달리 피해를 본 학생들이 나타났다. 또한 예전에 실시됐던 W제도에 비하면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많아 원활한 운영 및 학생편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승호 기자>

<서울> <용인>

단 대	인원(명)	단 대	인원(명)
서 대	218	서 대	134
동 대	135	동 대	217
정 대	11	인문대	18
상 대	50	사회대	11
법 대	26	자연대	31
사 대	32		
계	472	계	411

<단대별 수강취소 인원>

등록금 15%선 인상될 듯

사립총학장협의회 기여입학제 논의

내년도 사립대학 등록금이 15% 내외로 인상될 조짐이다.

한국사립대학총학장협의회(회장 민병천 동국대 총장)은 지난 4일(금) 임시총회에서 내년도 등록금 인상폭을 올해보다 15% 내외로 인상된 선에서 각 대학이 자율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립대 등록금이 15% 정도 인상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입시철마다 논란의 대상이 돼 온 기여입학제 실시와 관련해 신입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각 대학(총장)에게 부여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시기는 대학마다 사정에 따라 신중히 검토키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사립대 총장들은 지난 번 국책 공대로 선정된 8개 대학중 영남대만이 사립대로 선정된 사실을 지적하고, 내년부터 2백억원 규모의 국책대학원 선정 계획은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자리에서 사립대 총장들은 선별적 지원이 아닌 사립대에 대한 국고보조의 대폭확충과 모든 대학의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캠퍼스 노천극장 공사내역 점검

문구 엇갈린 불합리 공사

서울캠퍼스에서 진행중인 노천극장 돔(Dome)설치와 내부마이크 설치공사가가 대학당국과 학생들이 합의한 대로 이행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첫번째로 나타난 문제점은 학교측과 학생들이 '노천극장 돔설치'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7일(금) 식대인상저지 투쟁으로 마련된 2차 협상에서 이문제는 "노천극장에서 행사를 치를때마다 도서관및 수업을 진행하는 각 건물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노천극장 돔설치와 소음방지책 내부마이크를 설치한다"라고 마무리됐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노천극장 돔설치는 무대로만 국한된 문제였다"라고 주장해 현재 노천극장 무대지붕 공사만이(50평규모에 약 4천만원) 진행되고 있

이에반해 총학생회 사무국장 양봉렬(상경·무역 4)군은 "협상할 때는 분명히 노천극장 계단 쪽까지 돔설치라 했는데 현재 무대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학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주장에 학생처 한직원은 "설령 협상 때 계단쪽까지 돔을 설치한다 합의했어도 노천지하에 동아리방 등이 있어 지하를 파냈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므로 기술상 돔을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과 한직원은 "노천극장 쪽에 돔을 세울려고 한다면 기술상 크게 문제될 바 없다"라고 학생처 직원과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이와함께 소음방지책인 내부마이크 공사는 잠시 유보된 상태이다. 이에대해 학생처 직원은 "기술문제상 미뤄졌다"라고 밝혔으나 시청각 교육원 한 직원은 "내부마이크라는 것은 마이크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며 스피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소음이 크게 들리느냐, 적게 들리느냐를 결정한다"라고 소음방지책을 제시했다. 이것은 행사진행시 무대에 대형스피커를 놓을 경우 무대가 도서관과 마주보고 있기때문에 소음공해가 커 스피커의 방향을 도서관쪽에서 노천극장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음방지책 내부마이크 공사라는 것이 원래 시행되지 못할 잘못된 사항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시청각교육원 직원은 "노천무대에 지붕이 생기고 무대에 스피커를 놓으면 그 자체가 스피커 역할을 해 더욱 큰 소리가 난다"라며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소음방지책으로는 더욱 방해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소음방지책은 노천계단에 돔을 쌓고 그 돔에 음향시설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시청각교육원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것을 빨리 합의해 정확한 공사계획을 문서로 작성해 시청각교육원으로 보내 주어야 합의된 의견에 따라 시험후 시행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때 대학당국은 하루빨리 노천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학교측과 학생들의 협상자리에서 말한마디, 문구 하나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일깨워준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

<김인옥 기자>

외대사랑포럼 성황리 열려

대학교육 전반문제 지적 대응책 모색자리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0월 13일(목)부터 '외대사랑포럼'을 개최,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진행하고 오는 10일(목) '지역학의 개념과 현황'이라는 강연을 남겨놓고 있다.

'교육개방과 외대의 현실, 그 대안'이라는 큰 주제아래 열린 이번 포럼은 외대의 사회적 현실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첫번째 열린 '사립학교법과 사학재단(외대중심)'—강사 류계환(서양·독일어 87)— 주제의 포럼은 현재 외대가 처한 현실을 짚어주고 우리나라 사학들의 사립학교법 위반사례를 설명했다.

두번째는 '교육시장개방에 대하여(교육부 대학행정실 엄상현사무관)'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교육개방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이지 못한 대책과 그 허점'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해 강사가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또한 이자리는 아직까지 표출되지 않은 교육개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된 것은 세번째 강연인 '학교의 5개년 발전계획—이종윤 본교 기획조정처장(기조처장)'— 이었다. 특히 이날 강연은 전날에 비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외대발전 논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처장은 외대발전 5개년 계획 기본구상을 △서울캠퍼스와 용인캠퍼스 발전의 개념정립 △학문연구의 비교우위 창출 △외대 교육의 질적 수월성과 특수성 추구 등으로 요약·발제하는 형식으로 강연했다. 또한 기조처장은 "외대는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 발전을 위해 교수·학생·직원의 모든 총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지금 시기는 새로운 것보다는 우리의 역량을 기존체제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은 △교육개방에 대한 외대의 대응방안 △자곡동으로의 캠퍼스 이전 △95년도에 용인에 세워질 지역학 종합 연구센터 △5개년 발전안의 세부적 사안 등 심도 높은 질문을 했으나 기조처장은 "그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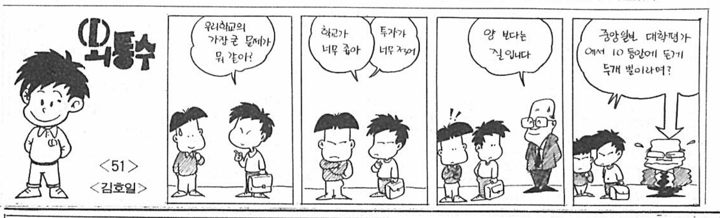
이후 2일(수)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과 그린벨트의 전반적 문제(한국토지 행정학회 회장 김태복 교수)'가 열렸으며, 오는 10일(목)에는 '지역학의 개념과 현황(삼성 지역연구소 소장)'이 대학원 건물 104호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지난 2일(수) 열린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과 그린벨트의 전반적 문제(한국토지행정학회 회장 김태복 교수)' 포럼에서는 현재 그린벨트법상의 문제점 및 자곡동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김태복 교수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그 지역의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마구잡이로 설정돼 있다"라며 "하남시는 98%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지역발전에 큰 저해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태복 교수는 "내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그린벨트법(도시계획법 제21조) 개정권한이 지방 정부로 위임될 가능성이 많다"라며 "자곡동 또한 강남·수서지역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밝혔다.

어제(7일) 열린 '김영삼 정권 2년과 지자제의 의미(이철 민주당 국회의원)' 강연은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는 가운데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 위원장 방학진(법·법학 4)군은 "우리는 외대의 현실을 외대 테두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알릴 필요가 있다"라며 "이제 지역학에 대한 마지막 포럼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51>
<김호일>

"특화발전·자곡동 이전 꼭 해야"

60% 이상 찬성

서울 총학 설문조사

외대발전, 그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2.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GB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당한 사람들이 모여 해제를 위해 각종 대정부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곡동 GB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예(59%)
②아니요(41%)
2-1. 예라고 응답한 이유는?
①교육용 부지로서 풀릴 수 있다(48%)
②자곡동 그린벨트를 위치상 풀린다(29%)
③학생들이 노력하면 풀릴 수 있다(20%)
④로비를 통해 풀릴 수 있다(5%)
2-2. 아니오라고 답한 이유는?
①환경보호 차원에서 GB는 절대 풀릴 수 없다(8.5%)
②현 도시 행정상 도시팽창 억제 정책에 따라 풀릴 수가 없다(22%)
③학교당국이나 재단이 풀 의지가 없다(58%)
④학생들의 힘만으로는 풀 수가 없어서(10%)
4. 95년도에 교육시장이 개방된다고 합니다. 외대가 외대의 특성을 살려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자곡동으로 이전하여 강남의 유일한 대학으로 교육환경의 질을 최대한한다(23%)
②교육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운영돼야 한다(47%)
③지역학을 도입하여 타대학과의 비교우위를 차지한다(26%)
④왕산으로 이전하여 교육환경의 질을 최대화 한다(1.3%)
⑤기타(3%)

<지면관계상 일부문항 생략>

자곡동 그린벨트 해제와 서울·용인캠퍼스 특화발전안에 대해 서울캠퍼스 60%이상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외대인의 날을 맞아 지난 9월 5일(월)부터 9일(토)까지 5일동안 총2백99명에게 일대일방식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자곡동 부분과 관련해 '약 20만평의 자곡동이 선배들의 등록금으로 매입됐다. (이와 관련 재단측은 등록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매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밝힘) 92년 학교당국은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그린벨트가 풀린 이후에 사용방도는 총학생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명시한 합의내용에 대해 68%의 학생들이 그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의 대상 중 93·94학번이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92년도 이후 서울캠퍼스에서 자곡동을 전제로 한 특화발전 논의가 꾸준히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지난 92년도에 대학당국과 학생들이 합의한 서울은 인문계열, 용인은 이공계열의 특화발전에 대해 61%가 '꼭해야 한다', 27%가 '좀더 구체적인 경로와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라고 밝혀 88%의 학생들이 이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곡동을 전제로 한 서울·용인 특화발전'을 주제로 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병만 총장의 '자곡동 이전은 허황된 계획'이라는 의견에 상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대 학술상 문학상 모집

제12회 외대 학술상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원고지 80매

제32회 외대 문학상

시(3편이상),
소설, 평론,
희곡, 번역,
수필 등
원고지 70매

제출일 : 11월 30일(수) 까지
제출처 : 외대학보 기자실
문의처 : 외대학보 기자실
02) 961-4152
0335) 30-4112

외 대 학 보

공 고

'94학년도 전기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94학년도 전기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니 착오없이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1994. 10. 24(월)-11. 18(금)
2. 장 소 : 용인캠퍼스 교무과
3. 제출서류 : 가) 무시험 검정원서 1부(소정양식)
   나) 전학년 성적증명 교부원 1부(소정양식)
   다) 주민등록 등본 1부
4.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교원자격증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나) 교직과정 이수자 중 교직과정의 소정학점을 이수한 자라 하더라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미제출자, 성직미달자(전공, 부전공 각각 3.0)의 교원자격증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후 불합격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자격증은 졸업식 행사 직후부터 사범대학 교학과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1994. 10. 20.

'94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접수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세칙 제15조 및 본 대학교 교직과정 운영규정 제4조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94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아 래-

1. 대 상 : '94학년도 10월 현재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제4학기를 등록한 학생으로서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고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2. 기 간 : 1994. 10. 17(월)-11. 11(금)
3. 접 수 처 : 사범대학 교학과, 용인캠퍼스 교무처
4. 제출서류 : 1.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5. 개강초 확인기간에 철저한 확인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1994. 10. 10.

사 범 대 학 장

'95학년도 제1학기 모현학사(기숙사)생 모집 안내

본 용인캠퍼스 모현학사는 '95학년도 제 1학기 남, 여 학사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코져하니 희망 학생은 신청하기 바람.

--아 래--

1.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 서 교 부 : 모현학사 운영과
   2) 접 수 기 간 : 1994. 11. 7(월)~11. 30(수)까지
   3) 원서 접수처 : 모현학사 운영과(기숙사 내)
2. 제출서류
   1) 입사원서(소정양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성적증명서 1통
   4) 증명사진 3장
3.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통학거리 고려
4. 입사확정 : 서류 심사후 입사 확정자에 한하여 입사기간 및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95년 2월 초순경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것 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과 문의 바람.
   모현학사 운영과 (0335) 33-1692, 30-4102, 4103

199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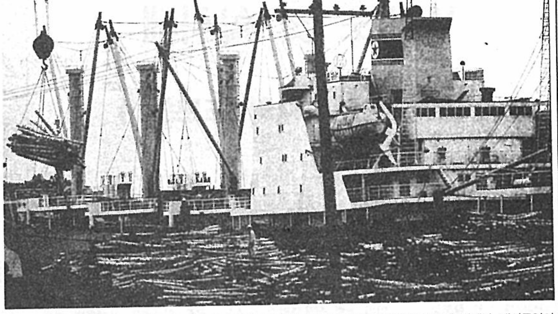
모 현 학 사 장

■시리즈 첫번째-북한경제의 현황과 대외경제 정책의 필요성

에너지 외화 절실…돌파구는 대외무역

80년대부터 경공업 발전과 대외무역 증진에 노력

지속적 경제성장 위해 경제개방 불가피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북한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인한 경공업의 침체와 대외무역의 비중이 낮음으로 인한 외화부족과 원유부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70년대부터 꾸준히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북미협상의 타결과 함께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한 많은 낙관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들은, 북한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가 상당한 곤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분석에 의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경제의 특징을 요약하고 이것을 북한의 개방전망과 관련지어 본다.

북한의 경제구조는 비교적 일관되게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 경제건설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징은 첫째로, 중공업 중심에 의한 경공업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비록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정책목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분단상황에 의한 군사적 대치의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군수산업의 중점적 육성이 기본방향으로 진행돼 왔고, 때문에 결국 민수부문과 경공업이 쇠퇴돼 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결국 1980년대 이후의 북한의 경제침체를 가져오고 주민들의 낮은 소비수준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둘째로,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근거하여 경제의 내적 동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중심적인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대외무역의 비중이 낮다. 이러한 특성은 경제규모가 작고 필요한 기술이나 시설을 많은 부분 해외의 선진국에서 도입해야 하는 조건속에서 필요로 되는 외화를 채무형태 이외에는 얻을 수 없게 만들며, 이러한 채무와 외화부족은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된다. 이는 북한이 70년대 이후 경제침체가 계속되어 온 이유중의 하나가 되며 현재의 대외무역의 강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간략하게 산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비해 산업별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전자, 조선공업 등과 경공업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석탄산업과 철광석 등의 생산량은 남한을 능가하고 있다. 한편 공업발전의 동력이 되는 에너지 분야에서 북한은 석탄공업이 발전하였지만 원유도입량이 현저히 적으며 이는 현대의 공업화 과정이 원유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북한의 공업발전에 일정한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경화결제 문제로 원유도입이 더욱 어려워짐으로 해서 에너지 부족 때문에 산업시설의 가동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개발을 통한 대체에너지 개발은 북한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며 북미협상의 타결에 따라 이후 산업성장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업은 북한의 인구비례에 맞추어 볼 때(1992년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곡물생산량은 남한의 약 2/3, 쌀 생산량은 남한의 약 1/2, 인구는 1/2)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의해 폭동까지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별로 큰 설득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래 북한의 지리적 여건에 의한 절대적 생산량이 적고 현재 계속되는 흉년으로 단기적으로 식량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항만보유와 선박보유에서는 북한이 외국과의 교역량이 많지 않고 또한 해안에 접한 영역이 적기 때문에 발전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 경공업 발전을 통한 주민들의 소비수준 향상을 대내적 정책목표로, 대외무역의 증진을 대외정책 목표로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계속적인 경제침체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히 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인민생활의 수준 향상, 무역 및 대외경제사업의 확대 등을 내걸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제3차 7개년계획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제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오고 있다. 즉 1987년에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심의, 등록 및 도입에 관한 규정' 그리고 1989년에는 '과학기술법'을 제정하였으며 1988년 11월의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전자, 자동차 공업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을 결정하여 정무원 산하에 '전자, 자동화 공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1988년 3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3개년계획'을 결정하여 1991년 7월부터 착수된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 등을 중요 대상부문으로 하여 이들 분야에 기술향상을 위해 계획기간동안 각급 과학기술 연구단위에 기술혁신 과제를 배당하고 과학기술 요원들을 공장, 기업소 등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기술혁신운동을 고무시키며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해 전문가들의 해외연수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채택되었다.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에서는 1차계획에서의 중요부문에 더하여 기계공학, 화학, 신소재개발, 농업 등의 부문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만 알려져 있다.

19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설정하면서 1989년 6월의 당중앙위원회 제16차 전원회의에서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1989. 7—1992. 6)이 수립되었다. 이는 "방직공업 발전으로 입는 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해결, 식료가공공업 발전으로 몇년 내에 식료가공품 3. 2배증대, 일용품공업 발전으로 몇년 내에 일용품 2. 5배 증대, 2—3년 내에 전반적 경공업 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대외무역에 대하여 1990년 5월24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은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북한의 일관된 방침으로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수출원천을 적극 개발하고 수출국의 질을 높여 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키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를 활발하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권과의 무역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또한 국가관계가 없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에서 경제기술적 협조와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994년 신년사에서도 무역과 신용의 중요성을 정책적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며 특히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자본주의권과의 경제적 교류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두만강개발계획에서 보인 북한의 적극적 의사표명에서도 입증된 것이다. 앞으로 속도와 범위에서는 차이를 보이겠지만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한층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은 경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북한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과 대외경제 개방정책

대외개방, 노선변화아닌 기존노선의 '강화'

자립적민족경제 틀안에서 외국자본활용

1984년 합영법 제정을 시작으로 외부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법을 제정하고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에는 대외경제정책에 한층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태도는 폐쇄경제라고 불리워왔던 '자립적민족경제건설 노선'을 점차 폐기해가고 있는 것인가?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건설을 시작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방향과 성격으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주장하여 왔다. 이 노선은 시기마다 강조점은 변화되어 오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노선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자립적 민족경제는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나가는 경제이며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이며 '중공업을 중심으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경제가 소규모이고 양적인 확대가 중요한 시기에는 그 정책적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기술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필요로 되는 시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북한이 60년대 말까지는 비약적 성장을 보이지만 70년대부터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가 결코 폐쇄경제가 아니며 대외무역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고 하여 수천만 가지의 물건을 다 자체로 생산할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의 원칙으로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노선을 계속 견지하면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맺고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국가단일 무역체제에 의거하여 대외무역을 계획적으로 발전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며 △신용제일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 북한의 변화된 태도라고 주목받고 있는 경제합작 및 합영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자. 1979년부터 중국에서 시행된 경제특구(대외개방지대)에 대해 북한은 외국자본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융통성있는 대외경제시책이라고 보고있다. 즉 사회주의권이 자신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기반으로 하여 외국자본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합영이란 서로 다른 나라의 경제기관 또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금이나 생산물을 나누어 가지는 경제거래의 형식과 방법으로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고 한다. 사회주의에서의 합영은 경제, 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형태의 하나로서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제품의 가치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며 동력과 자재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외화수입을 늘이고 생산제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합영당사자 간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견지하고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관점에서 합작이나 합영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경제발전의 한 방도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 대외무역의 증진과 어떠한 모순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자가 전자를 강화하는 데 복무한다는 것이며, 흔히 대외개방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합작 및 합영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모순되지 않는 정책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은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총노선의 범위내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폐쇄경제라고 이해하고 합영법 제정이후의 여러 조치들을 특별한 노선의 변화라고 이해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 오히려 경제침체를 극복하면서 경제건설을 위한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축적하기 위해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며 1975년 이후 외채상환연기 사태에 직면하여 차관도입이 어려움에 따라 필요로 되는 외화조달을 위해 외국의 합작투자를 유치할 필요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동력으로 설정된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공백이 된 대외경제 상대국의 개척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다방면의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필자와 동일>

<글싣는 차례>

1. 북한경제의 현황과 대외경제정책의 필요성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과 대외경제 개방정책의 관계

2. 두만강 개발계획이 가지는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의미
북한이 바라보고 있는 두만강 개발계획의 상

3. 남한과 외국의 두만강 개발계획 참여 현황
남한기업의 두만강 개발계획 참여 시도 실례

신입사원모집

세계를 향한
도전과 패기—
삼양에서 꿈을
펼치십시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대졸 신입 사원	상경계, 법학, 행정, 중문, 노문, 영문, 섬유, 화공, 환경, 기계, 전기, 전자, 식품, 축산, 수의, 토목	○○명	1. 정규 4년제대학 모집 해당학과 전공자로서 95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2.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의무필 또는 면제자 (여자는 7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여자 학사 연구원	화공, 공업화학, 고분자, 화학, 약학	○명	
석사 연구원	섬유, 고분자, 화공, 약학, 의상	○○명	1. 모집해당학과 전공자로서 95년 2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2.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여자는 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병역의무필 또는 면제자 우대

2. 전형방법

가. 대졸신입사원, 연구원(학사)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 《필기시험일 12월 4일(일)》
나. 연구원(석사) : 서류심사 → 연구소 세미나 → 면접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당사 소정양식) ······ 1부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 1부
다.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석사 지원자) ······ 1부
라. 자격증 사본(소지자) ······ 1부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및 교부처
- 1994. 11. 10(목) ~ 11. 16(수)
- 삼양사 본사, 부산지점, 대구지점, 대전지점, 광주지점, 마산지점, 전주공장, 울산공장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1994. 11. 10(목) ~ 11. 16(수)
- 삼양사 본사 :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 (주)삼양사 인사부 인사과 (우) 110-725 전화 : (02)740-7154, 7155

5. 기타

가. 모집인원중에는 계열회사(선일포도당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삼양화성주식회사)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나.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다. 우편접수는 11월 16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기 바람.

■각 지점및 공장 전화번호
• 부산지점 : (051)463-3841~6 • 대구지점 : (053)753-9901~8 • 대전지점 : (042)626-2311~7
• 광주지점 : (062)525-9911~7 • 마산지점 : (0551)93-2661~5 • 전주공장 : (0652)210-2237-8 • 울산공장 : (0522)79-4581~2

삼양그룹

• 주식회사삼양사 (化纖, 식품, 사료, 化成, 환경사업) • 삼양중기주식회사 • 선일포도당주식회사 •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 삼양화성주식회사 • 신한제분주식회사 • 삼양종합금융주식회사 • 주식회사삼양메디케어 • 디완살만파이버 • SY텍스타일 • 삼양그룹연구소 • 양영회 • 수당장학회

□공개심포지움–북한연구가들이 말하는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과 견해

통일위한 주체사상에의 학술적 접근

김남식(평화연구소)

"마르크스와는 근본문제가 다른 인간중심의 철학"

장완익(변호사)

"국가보안법은 헌법이념과 모순된 불합리한 법"

북미 3단계회담의 타결로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풀릴것으로 예상되자 북한상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연구가들은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 북한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틀림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교 용인캠퍼스에서는 '북한 연구가들이 말하는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과 견해'라는 제목에 공개심포지움이 지난 1일(화)에 있었다.

이번 공개심포지움에는 평화연구소의 김남식 연구위원과 본교에서 '북한 정치 사회의 전개'를 강의하고 있는 통일원 자문위원 홍승원 교수, 동국대강사이며 현재통일원에 있는 윤경태 교수, 본교 '주체사상연구회'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장완익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가했다.

통일원의 자문위원인 홍승원 교수는 "북한을 이해하는데 있어 우리는 자본주의의 잣대로 북한의 모습을 측정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주체'란 공식 이데올로기로 살아가는 독창성을 보이는 나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의 삶의 잣대인 주체사상에 입각해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고 전제한후 주체사상이 북한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홍교수는 주체사상이 민족정서에서도 호소력있게 사회구성원간의 일체감을 형성해 주었고, 북한주민들에게 최상의 도덕적 규범으로까지 정착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적으로 노력동원과 김일성 숭배를 독려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궁극적으로 권력승계를 합리화시켰다"며 "주체사상도 재해석의 단계가 왔다"라고 발제를 마쳤다.

평화연구소의 김남식 연구위원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현실에 발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라는 인간중심의 혁명사상을 창조하게 되었으며,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은 70년대 들어서면서 종합적인 이론체계가 형성된 것으로, 82년 김정일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기본틀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의 차이점에 대해 김연구위원은 "마르크스주의는 세계의 근원적인 문제를 물질의 일차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철학체계를 전개했으며, 주체사상은 물질의 일차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최고차원적 물질인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철학의 근본문제로 설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철학체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론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원의 윤경태 교수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북한정권의 수립과정에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조됐으며 이러한 주체사상은 수령에 의한 신정체제와 세습적 권력 계승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체사상에 대한 발제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의 장완익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학문, 사상의 자유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법조계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의 폐해에 대해 설명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형법의 규정이 있는 데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유지의 측면이 크다"라며 "학문,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며 발제를 끝냈다.

3시간여동안 진행된 심포지움을 통해 주체사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 주체사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신동헌 기자>

홍승원 교수(통일원)

"북한 이해를 위해선 그들의 잣대인 주체사상 이해해야"

김경태 교수(통일원)

"주체사상은 신정체제와 세습적 권력 계승 정당화 도구"

학/술/단/신

전국연합 시민대토론회
'UR조기비준 반대'시민과 공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오는 11일(금)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UR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UR과 WTO가입의 비준을 상정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전국연합과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등 여러 단체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시민대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열리는 것이다.

시민대토론회에서는 정부의 UR조기비준 방침에 대해 UR협정문 및 부속규정 등의 번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아직 국회비준을 하지 않은 것등을 들어 조기비준 강행의 부당성을 시민들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이익을 위한 비준등의 절차 연기의 필요성과 이후 계속 진행되게 될 후속협상에서 정부가 자주적으로 대처하기를 촉구하는 운동을 시민들과 같이 진행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

학단협 연합심포지움
개방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오는 12일(토) 오전 10시 성균관대 종합강의동 건물에서 '국제화와 한국사회-진보적 대안'이라는 주제의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주최 연합심포지움이 열린다.

이번 심포지움은 국제화 이론의 점검 및 비판을 통한 새로운 이론과 정책대안을 진보적 입장에서 검토하면서 구체적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후 진행될 추가협상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되게 된다.

'국제화 시대의 한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정일준(한국산업사회연구회 간사)의 총론발표를 시작으로 2층 시청각 세미나실에서는 80년대 이후 자본국제화와 국제적 경제조정, 한국자본의 해외진출, 국제화와 민주주의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고 모니터실에서는 국제환경안보와 동북아의 환경전략, 자본국제화와 서울재구조화 등의 논의가 진행된다. 끝으로 김동순(서울대 경제학)강사, 유팔무(한양대 경제학) 교수 등이 종합토론을 벌이게 된다.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사교실
역사적 인물 통해 통일의 사상적 기반 마련

남북화해의 조건이 국제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도 아직 우리민족은 남북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정치·사회 사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역사적 경험속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역사문제연구소는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인물로 본 한국민족주의'라는 주제로 한국사교실을 개최한다.

△9일 '김옥균과 개화사상'–배항섭(홍익대 고대한국사 강사)

△16일 '신채호와 비타협노선'–하일식(연세대 사학 강사)

△23일 '조소앙과 삼균주의'–노경재(수원대 사학 교수)

△30일 '여운형과 좌우합작'–서중석(성균관대 사학 교수)

사민청 정치학교 개설
민중노동운동 중심으로 정세 파악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은 오늘부터 12월6일(화)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 사민청 대강당에서 '제26기 정치학교'를 개설한다.

현시기 국제·국내 정세를 올바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앞당긴다는 취지로 열리게 될 이번 정치학교에서는 주로 '현시기 민중운동의 이해와 전망'과 '노동운동의 이해'의 두 분야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게 된다.

'94노동운동의 평가와 이후 전망, UR비준과 민중운동진영의 대응, 일제침략기–전지협 투쟁까지의 노동운동사와 민주노총의 성격 및 건설원칙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 (문의전화: 745–7424)

소금상자

가격파괴 현상

가격파괴란 값이 큰 폭으로 내리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로서 아직 개념이 정립된 상태는 아니지만 대체로 생산자가 매기는 소비자 가격체계를 '파괴'하고 유통업체 주도 아래 값을 크게 내린다는 뜻으로 쓰인다.

신세계백화점이 세운 대규모 할인 판매점인 E마트와 프라이스 클럽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면서 롯데, 현대, 삼성, 미원, 효성, 선경 등 재벌기업을 포함한 20여개 기업이 할인판매점에 뛰어들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변화의 큰 흐름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주요한 현상이다.

아직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가격파괴가 전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조업체의 독점적 가격구조와 잘못된 유통구조 속에서 손해를 보고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격파괴 현상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격파괴로 기업이 안게되는 원가인하의 큰 몫을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10년전부터 가격파괴 현상이 진행된 미국 노동자의 임금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유통업체의 대부분이 재벌기업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가격파괴가 임금파괴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책

냉전속에 수난당한 통일론 재조명

'통일론 수난사'에서는 반세기동안의 극한적인 분단상황 속에서 정치인, 학자, 종교인, 언론인, 지식인들이 제기해 왔던 평화통일론을 조명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정권에 의해 탄압받아 왔는가를 그리고 있다.

8·15해방이 미국과 소련에 의한 민족분단의 시발점으로 바뀌고 남북에 각각 반쪽정권이 세워질 조짐이 보이자 김구선생은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결코·단독정부 수립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평양으로 가서 북쪽 지도자들과 회담하는 등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단정수립 세력에 의해 암살되고 말았다. 그의 암살은 통일정부수립세력의 수난의 시작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50년대 초 미국과 일본에서 김삼규씨와 김용중 그리고 최봉윤씨를 중심으로 한국통일은 국제적 동의에 의한 중립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였고 조봉암씨는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해야 했다.

1961년 혁신세력이 4월혁명을 계기로 급격히 부상하는 과정에서 창간되어 남북협상, 중립화통일, 민족자주통일을 주창하며 통일논의를 이끌었던 '민족일보'가 5·16군사쿠테타와 함께 강제 폐간당했다. 당시 '민족일보'는 대담한 편집과 진보적 내용으로 서울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신문이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7·4공동성명(72년), 6·24선언(73년),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74년) 등 일련의 탈냉전적 조처를 취했다. 또한 박 정권은 통일론을 독점하면서 배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통일론을 심하게 탄압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대중씨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다.

북한의 연방제통일과 흡사한 김대중씨의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정착의 3단계 통일방안은 박정권과 전두환정권에 의해 '용공이적'으로 몰려 73년 8월 8일 도쿄납치사건, 80년 가을의 사형선고 등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1988년 2월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제37차총회에서 기독교의 '희년'에 해당하는 1995년 분단 50돌을 맞아서 통일국가를 이룩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95년 통일원년'이 처음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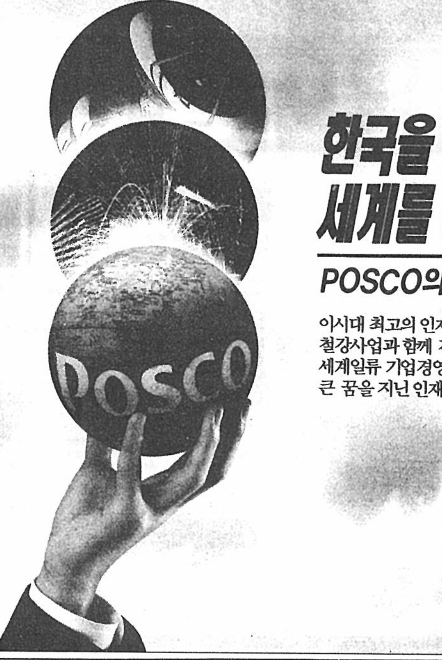
지난 반세기 동안 조국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다가 많은 사람이 희생되거나 수난을 당했다. 역대정권의 통일론은 정권안보용으로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이러한현상은 최근의 '조문파동'으로 알 수 있듯이 지금도 크게 달리지지 않고 있다. 북미 3단계협상의 타결로 마지막 냉전지대였던 한반도에도 평화의 조류가 밀려오고 있다. 통일론과 관련하여 더 이상 우리내부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수난을 반복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 책은 비록 한쪽의 통일논의만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존재함에도 그동안의 통일론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고(13명의 통일론), 통일론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동안 잊혀져 왔던 각종 통일론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신동헌 기자>

공동채용회사
POSCO .... 철강생산
POSEC .... 엔지니어링·건설
POSCON .... 공장자동화
POSDATA .... SI, OA
POSCOCHEM .... 정밀화학
POSCOHÜLS .... 반도체
POSTEEL .... 철강유통
POSTRADE .... 종합무역



한국을 이끌어 온 기업
세계를 이끌어 갈 기업

POSCO의 미래경영을 맡아 주십시오

이시대 최고의 인재가 모여 세계와 겨루는 기업,
철강사업과 함께 건설·엔지니어링, 정보통신분야에서도
세계일류 기업경영을 창조하고 있는 기업 포스코—
큰 꿈을 지닌 인재를 포스코의 큰 세계로 초대합니다.

대졸신입사원모집

1. 모집분야 및 자격

모집분야		인원	응시자격
기술계	기계, 전기, 전자, 금속, 화공, IE, 토목, 건축, 전산	○○○명	●정규4년제 대학(원) 해당 또는 관련 학과 학사·석사 학위취득한 분 및 '95. 2월 학위취득 예정인 분 ●학사는 '67년 1월 1일 이후, 석사는 '6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분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분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사무계	경영, 경제, 무역, 법학, 행정		

※인문사회계열 및 이문계열은 모집분야 중 1개전공을 택일하여 응시

2. 전형방법
●1차: 필기시험(영어, 상식)
–일시: '94.12.4(일) 오전 9시
–장소: 홍익대학교 및 홍익여중고(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2차: 면접, 신체검사(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3. 서류제출
●제출서류: 입사지원서(회사소정양식) 1부

지원서교부처	지원서접수
●각 대학 학생처 또는 취업보도실 ●포항제철 서울사무소 (서울시청 좌측 소재) ●공동채용 각사 인사과	●기 간: '94.11.10(목)~11.24(목) ●접수방법: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100-191)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포항제철 인력관리부

4. 기타사항
●1차전형은 그룹공동 전형하며 2차전형은 입사지원한 각사별 별도전형에 의거 합격결정함
●국가보훈대상자는 증명서 제출시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기타 의문사항은 접수처로 문의바람. (문의처: 02-7584-431~3)

포스코그룹인력관리위원회

기획좌담－대학신문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

끝없이 추구해야 할 진보와 실험정신

정진석

가로쓰기, 한글전용처럼 대학신문이 '실험적'인 것들을 시도했으면 합니다.

외대학보가 70여일의 제작중지 기간을 끝내고 정상발행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대학신문이 걸어온 역사를 짚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위상을 찾고자 이 좌담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일 시 : 1994년 10월 30일(토)
좌담자 : 유일상<건국대 교수, 본교 강사>
정진석<본교 신방과 교수>
김진현<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
사 회 : 이현재<본보 편집장>
정 리 : 이옥선<본보 문화부장>

사회 :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두 교수님과 김진현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신문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길에 대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신문의 역사

사회 : 먼저 대학신문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 봤으면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고 역사속에서 그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관해 얘기했으면 합니다.

대학신문이 발전해온 길을 보면 그것은 사회발전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7년 발행된 고대, 중대신문 등은 당시 좌·우의 대립으로 인한 시대적 어려움 때문에 학교 홍보, 학술지 기능만을 담당했습니다. 그후 4·19, 5·16을 거치면서 80년 광주민중항쟁, 84년 학원자율화 조치 등을 기점으로 대학신문은 사회민주화 요구를 담음으로써 제도언론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소화했습니다. 이상이 대학신문의 개괄적 역사가 아닐까 합니다.

정진석 : 대학신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898년에 배재학당 학생회에서 만든 '협성회회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회에서 발간되던 일반신문과 다르지 않았는데 신문발간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상황에서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뜸하다가 중앙대와 고려대가 신문을 발간했고 서울대학교가 대학연합신문인 '대학신문'을 냈습니다. 위의 신문들은 사회계도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신을 거치면서 억압받던 편집권이 87년 6·29선언이후 대폭 자율화되면서 대학신문이 '사회 민주화'라는 사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지 않았나 합니다.

김진현 : 앞서 두분이 말씀하신 대학신문 역사에 전대기련에 대해 덧붙이고자 합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후 여러 연합조직이 결성되면서 전국의 대학신문기자들은 이전의 연합체를 더욱 발전시켜 전대기련을 건설했습니다. 산발적이던 내용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북한 바로알기, 방북취재 등 통일문제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왔던 것이 바로 대학신문입니다.

현재 대학신문의 위상은

사회 : 대학신문의 역사와 변화된 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위상과 역할을 지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 지금은 다채널, 다매체화 되었습니다. 모든 매체가 전문화되어 소설 전문지, 시사전문지, 과학 전문지 등이 제각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체환경이 달라졌는데 대학신문이 모든 것을 담으려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통일이나 사회변혁의 문제는 학술지나 다른 매체에서 다뤄야 합니다.

유일상 : 한 학교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 여러개인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학신문은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하나의 위상을 가지고 대학인의 목소리를 내는 확성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과거 대학신문이 했던, 일반언론이 전혀 하지 못했던 것들이지요. 현재 겉보기에는 '문민정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반언론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민족과 통일 등에 관한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독자들의 정서에 맞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서술해야 하지요.

김진현

진정한 대중신문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김진현 : 그렇습니다. 대학신문은 언제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80년대의 논조들은 대학신문이 해야 할 여러과제 중 사회변혁에 복무해야 할 과제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합니다. 이에 89년 전대기련은 매체혁신을 선언하고 두면에 걸쳐 논문이나 기획기사가 들어가는 등의 관행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하면서도 쉽게 다가가는 신문으로 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몇년동안 주체, 조직, 지면에 걸쳐 계속 변화를 위해 경주해왔지만 독자들의 변화에 그리 잘 부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통일을 대비해야 할 시점에서 학내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사회민주화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포괄해 독자(학생, 교수, 직원…)들이 학내외에서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대기련이 지향하는 '대중신문'이구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정한 대중신문은 독자들이 변한다고 해서 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흐름을 읽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대학신문, 대학신문 기자

사회 : 이상의 논의는 '중심을 잃지 않고 항상 변화발전하는 대학신문'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신문 기자들은 나름대로 며칠씩 밤을 새가며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 대학신문 기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일반신문과 다른 점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상 : 대학신문은 대학생들이 만드는 신문입니다. 그들이 일반언론을 견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일간지 기자들은 매우 보수화되어 있어서 진리에 민감한 대학신문 기자들이 그런 언론에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반면 너무 대립을 강조하는 면이 없지 않나 합니다. 모순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대학공동체로서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충분한 취재와 자기 기사에 완벽하게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유일상

일반언론이 제대로 못하는 민족과 통일 등에 관한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정진석 : 더이상 제도언론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상업언론이 있을 뿐입니다.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대학신문은 무엇보다 변화에 유리합니다. 상업언론이 하지 못하는 가로쓰기, 한글전용을 먼저 시작한 것이 대학신문인 것처럼 대학신문이 '실험적'인 많은 것들을 시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학신문은 그 학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 이번 외대학보 제작중지같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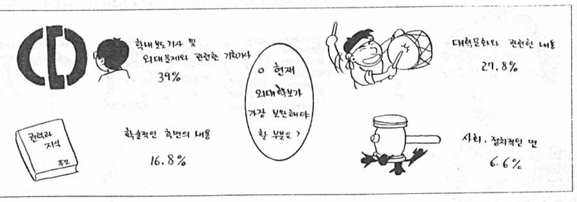
유일상 : 르몽드지등 명망있는 신문들은 대개 권력으로터 자유롭고 자본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성언론은 두가지 모두에 묶여있어 옳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지는 대학신문은 권력으로부터도, 자본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바른언론이 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이 자리에서 완전히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대학신문과 그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신문이 제도언론과 달리 할 수 있는 역할이 명확히 있으며 학생기자들은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노력으로 독자들에게 가까워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신문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학신문의 주인인 학내 주체들의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와 관심이겠지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기자>

□그림돋보기－외대학보·외대학보 제작중지 사태에 대한 인식



학교측에 의한 제작중지 부당하다…63.4%

설문조사 결과분석

때 : 10월 27일～28일
대상 : 서울 : 320명, 왕산 : 180명 총 : 500명

1. 외대학보를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①나올때 마다 항상 본다. (34.2%)
②자주보는 편이다. (28.2%)
③가끔본다. (25%)
④전혀 보지 않는다. (1.4%)
⑤기타. (11.2%)

2. 현재 외대학보가 가장 보완해야 할 부분은
①학내 보도기사 및 외대문제와 관련한 풍부한 기획기사(39%)
②학술적인 측면의 내용(12.2%)
③대학문화와 관련한 내용(27.8%)
④사회정치적인 면(6.6%)
⑤기타. (14.4%)

3. 외대학보기사에 대한 신뢰성은?

0.4%	10%	13.3%	10.8%	19.6%	28%	14.9%	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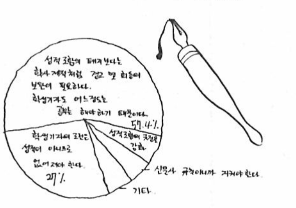
<이하 외대학보 싸움과 관련한 문항>

1. 외대학보가 주간교수 및 학교측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①발행인이 총장이므로 어쩔 수 없다. (0.2%)
②총장 및 주간교수 측에서 학생기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14%)
③학생기자들이 학교측에 최대한 양보를 해 신문은 나오게 해야 한다. (4.6%)
④외대인의 신문이므로 어느 한쪽(학교측이나 학생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발행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63.4%)
⑤기타(2%)

2. 외대학보 제작중지 철회와 관련한 기자들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①성적문제로 학교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무모한 것이었다. (7.6%)
②기자들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사안 자체가 현재의 학교나 사회의 정서에 맞지 않는 싸움이었다. (25.6%
③정당한 싸움이었지만 학우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싸움이었다고 생각한다. (42.4%)
④정당한 싸움이었고, 학우들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싸움이었다고 생각한다. (6.6%)
⑤기타. (17.8%)

4. 외대학보가 싸움을 정리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①일단 신문은 나와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21.8%)
②학교당국은 태도가 완강한 만큼 더 굳건하게 싸웠어야 했다. (3.6%)
③학교당국의 비교육적인 태도와 학생들이 주인으로서의 자기권리를 지켜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28%)
④패배했다. 정당한 싸움을 한다고 했으면서도 그 정당함을 실현시켜내지 못한 기자들의 싸움방식은 비판받아야 한다. (7.4%)
⑤결과야 어떻든 침체돼있는 학교에 건강한 문제제기를 통해 외대인이 외대의 주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좋은 계기였다. (21.2%)
⑥기타. (18%)

학생기자에 대한 성적제한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설문조사는 외대학보에 대한 외대생의 인식도를 알아보고 독자들과 함께 학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또 지난 개강호(8월30일자) 이후 2개월간 정상 발행을 하지 못하게 된 사태에 대해서 외대학보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솔직한 평가를 듣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는 지난 10월 27일(목)과 28일(금) 양일간 서울캠퍼스 320명, 용인캠퍼스 180명 총 50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강의실에서 이뤄졌다.

<편집자주>

< 외대학보관 >

'외대학보를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2%가 나올때마다 본다는 항에 답했고 '자주보는 편이다'는 응답자의 28.2%가 들었다. 이로 보아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62.4%가 외대학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외대인이 학보를 읽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제목을 보고 선별해서 읽는다'가 가장 많은 56.2%를 차지했다. 학보가 진보적이고 알찬 내용을 깊이 있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내용성뿐만 아니라 제목, 편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외대학보 기자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지향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학생들 속에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동시에 독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 현재 학보가 가장 보완해야 할 부분을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39%가 '학내 보도기사및 외대문제와 관련한 기사'를 들었다. 이는 가장 관심있게 보는 기사가 대학보도 기사(46%)임을 볼때 외대생들은 주로 학보를 통해 학교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대가 안고 있는 산적한 모순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비판, 그 대안을 학보를 통해 알고 싶어한다는 요구로 보인다. 이와 함게 외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그밖에도 응답자의 27.8%가 '대학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꼽고 있고, 16.8%가 '학술적인 내용', 6.6%가 '사회정치적인 기사'에 각각 답하고 있다.

<외대학보 제작중지 사태에 대해>

먼저 학보제작 중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63.4%(317명)가 '외대인의 신문이므로 학교측에 의해 정상발행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답하고 있다. 또, 학교측에서 학생기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가 14%를 차지했다. 학보는 그 독자층이 주로 학생이고 그 물적토대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지는 점을 감안해 볼때 학교측이 대화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폭을 좁히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음을 나타내준다.

또 이번 외대학보 제작중지의 명목상의 이유가 되었던 학생기자에 대한 성적제한 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적조항의 폐지보다는 학사제적 제도가 경고 몇회의 보완이 있듯이 기자들의 성적제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57.4%)는 외대인 스스로의 진단을 내렸다. 이것은 학생기자들의 학교측과 협상시 제시했던 점과 일치 하고 있다. 한편 학생기자의 자격과 조건은 성적이 아니므로 성적제한 조치는 폐지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응답자도 27%나 차지했다.

<문화부>

"韓進의 이름으로 世界를 호흡하십시오"

한진그룹 사원모집

신입사원 모집

1. 회사별 모집분야

구 분	직종별 전공별 모집분야	전형 절차	필기시험 과 목	우편 접수	지원 안내
대한항공	사무직: 인문사회계열 전학과(법·행정·상경계 우대) 항공기술직: 항공, 기계, 전자, 전기, 산업공학 생산기술직: 항공, 기계, 전자, 전기, 산업공학, 금속 전산직: 석·박사 모집란 참조(석·박사)	필기－면접－신체검사	사무직: 영어, 직무수행능력 기술직: 영어, 전공	불가	서울 02-751-7328~30 부산 051-461-7212 대구 053-423-4237 제주 064-50-8211
한진해운	사무직: 인문사회계열 전학과	필기－면접－신체검사	영어, 직무수행능력	불가	서울 02-728-5122~6
동양화재 해상보험	일반직: 상경·법정·어문·이공계열 영업직: 전공 제한 없음	필기－면접－신체검사	영어, 상식	가능	서울 02-785-7711 (대표)
한진중공업	사무직: 법정·상경·어문계열 기술·연구직: 기계, 전자, 전기, 계측제어, 조선, 기타 이공 ※석사학위 소지자 경력인정 및 우대함.	서류－필기－면접－신체검사	영어, 적성검사	가능	부산 051-410-3092~5 서울 02-728-5430~2
코리아타코마 조선공업	사무직: 경영학 기술직: 기계, 전자, 전기, 조선	서류－필기－면접－신체검사	영어	가능	마산 0551-55-1181~8 서울 02-728-5445
한진건설	사무직: 상경·법정·인문계열, 도시계획, 도시공학 기술직: 기계, 전자, 전기, 건축, 토목, 계측제어, 환경공학 연구직: 석·박사 모집란 참조(석사)	서류－필기－면접－신체검사	영어, 적성검사	가능	서울 02-450-8402~5 부산 051-645-1896 대전 042-825-6567
한진종합건설	사무직: 상경·법정·어문계열, 도시계획, 도시공학 기술직: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서류－필기－면접－신체검사	영어, 적성검사	가능	인천 032-880-7311~3 서울 02-450-5114
한진정보통신	사무직: 전공 제한 없음 전산직: 전공 제한 없음	필기－면접－신체검사	사무직: 영어, 상식 전산직: 영어, 적성	가능	서울 02-726-6511~4
한진관광	사무직: 인문사회계열 전학과(관광, 어문계열 우대)	필기－면접－신체검사	영어, 상식	불가	서울 02-726-5641~3
한국항공	사무직: 상경계열	서류－필기－면접－신체검사	영어, 상식, 논문	가능	서울 02-660-6262~4
대한종합운수	사무직: 인문사회계열 전학과	서류－필기－면접－신체검사	영어, 상식	가능	부산 051-466-9141~5 서울 02-702-6342

※대한항공 생산기술직은 부산지역(항공우주사업 분야) 근무 가능한 분.

2. 모집인원
550~600명

3. 응시자격
• 196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분
• 모집해당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1995년 2월 학위 취득 예정인 분
(한진중공업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 또는 취득예정자는 1964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분.)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분(한진중공업의 경우,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는 병역특례 가능)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4. 필기시험 일자 및 장소
• 필기시험일자: 1994년 12월 4일(일)
• 필기시험장소: 접수시 안내함

5. 제출서류
• 응시원서(각 회사별 소정양식)………………………………1부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대학원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는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포함)………1부

6. 응시원서 교부·접수
• 교부·접수일시: 1994년 11월 8일(화)~16일(수)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4:00
• 교부·접수장소
서울 ……(대한항공)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본사빌딩(지하철 시청역)……02-751-7330
서울……(한진건설, 한진종합건설) 성동구 구의동 한진건설본사(지하철2호선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건물)……02-450-8405
서울……(위3개사 제외 전 회사) 중구 소공동 해운센타빌딩 신관 7층(미도파백화점 옆)……02-726-6609
부산……(전 회사 공통) 중구 중앙동4가 대한항공 부산지점……051-461-7212
제주……(전 회사 공통) 제주시 이도1동 대한항공 제주지점……064-50-8211
※단, 각 회사 본사 및 일부지방지점에서도 해당회사 원서접수 가능하며, 위치는 응시희망 회사로 문의바람.

7. 기타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규에 의거 우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가능여부는 회사별로 다르며(좌측 도표 참조), 접수처 주소는 응시 희망 회사로 문의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 희망 회사로 문의바람.

석·박사 모집

1. 대한항공 전산직(석·박사)

전공분야	응시자격	제출서류	전형절차	모집인원
COMPUTER NETWORK, DATA BASE, S/W ENGINEERING, AI, 정보시스템 설계, 경영정보시스템, 산업공학, 통계학 전공	• 196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분 (단, 박사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분) • 모집해당분야 석·박사학위 소지 또는 1995년 2월 학위취득 예정인 분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분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응시원서 (대한항공 소정양식) •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 연구논문	서류 전형 ↓ 면접 ↓ 신체검사	약간명

2. 한진건설 연구직(석사)

전공분야	응시자격	제출서류	전형절차	모집인원
건축, 토목, 전기, 기계	• 196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분. • 모집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 또는 1995년 2월 학위취득 예정인 분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분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응시원서 (한진건설 소정양식) •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 연구논문	서류전형 ↓ 필기 ↓ 면접 ↓ 신체검사	약간명

3. 기타
•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기타사항은 신입사원 모집과 동일함

세계로 길을 여는－ 韓進그룹

□'월간조선'의 민예총 관련기사에 대하여

민예총의 족쇄로 발벗고 나선 '월간조선'

조선, 불순한 단체로 보도…민예총, 명예훼손 고소 준비

"사상이 불순한 단체, 민예총을 사단법인화한 것은 정부의 실수였다"는 지난 10월호 '월간 조선'의 기사는 이 시대를 공안정국으로 몰고가는 보수언론 '조선'이 낳은 제2의 박홍선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반응은 한마디로 '모기에 물린정도(?)'

"논리도 안맞고 우리 문건을 조작·왜곡한 것이 여실해서 걱정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현재 조선의 발언에 대한 보도정정 및 민예총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민예총 정책실장 정인섭씨는 말한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부터 행정적인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민예총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며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기업들의 문예지원금 조달도 상당히 줄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빌미로 정부측에서는 지원금 조달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진보적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법적 인정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또다른 족쇄인 것이다.

민예총의 대중속으로 더욱가깝게 다가가기위한 노력은 '금강'의 성과로 대중들에게 인정받았다.

민예총은 지난 88년부터 사단법인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정부는 "다수·문화단체들도 많은데 굳이 또 만들 필요없다"는 핑계로 불허해왔다. 이것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고 민예총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위한 것보다는 당시의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는 문화행사를 만들기 위한 것에 더욱 노력해 왔다. 93년 3월 사단법인화의 요구는 무리없이 수용됐는데 이는 군사독재라는 허울을 벗어 이제는 변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부에게도 필요했고, 소위 운동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폭넓은 대중에게 소홀했던 민예총에게도 필요한 것이었다.

대중속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노력은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금강'의 성과로도 쉽게 보여지듯이 민예총은 대중에게 인정받았다.

"소위 일반 대중들의 대변지라고 자부하는 일간지가 북·미 회담도 성사됐고, 국내분위기도 통일로 향하는데 주사파니 뭐니 하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게 안타까워요. 박홍을 그렇게 우려먹고도 또 남았다니, 이젠 문화정세도 통일 분위기로 흘러야 정상 아닌가요?"라며 민예총 주최로 열리고 있는 문예 아카데미에 온 한 시민은 보수언론의 편파성을 비판했다.

이처럼 언론의 보수성은 지난 10월 일본에서 민예총 주체로 열린 '코리아통일미술전'의 평가에서 더욱 잘 보여준다. 미술전의 기획의도는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여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였던 반면 언론에서는 "남한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의 표현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식으로 평가를 내려 민예총의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오히려 사상불순과 반북적인 분위기로 몰고가며 먹칠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냉전적 사고로 사건을 왜곡 보도하는 것이 소위 국민의 대변지라고 자부하는 매체가 취할 자세인가 보수언론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문화부>

문화단신

용인, 사월문학반 시화전

용인캠퍼스 문학동아리 '사월문학반'은 지난 10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시화전을 가졌다.

시적 기교를 부린 글보다는 지은이의 생각을 담담하게 그려낸 생활 속의 주제가 담긴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월문학반의 창작활동에 관한 물음에 "비평회와 문예댓거리를 통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자신의 글에 대한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이번 시화전을 준비한 김정영(자연·화학 2)군은 말했다.

용인, 독일어과 제6회 시월축제

용인캠퍼스 서양학대학 독일어과는 지난 10월 27일(목)에 노천극장에서 6번째 시월 축제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을 열었다.

'통일로 전진하는 하나된 독어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특히 독일어과 창설 15주년을 맞아 더욱 비중있게 치뤄졌다.

이 행사를 준비한 과회장 이종민(서학·독일어 4)양은 "과성원의 단결과 학회의 입지를 굳게 하고 내년의 활동을 준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이번 행사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용인, 인도어과 10주년 기념행사

지난 10월 31일(월)부터 11월 5일(토)까지 용인캠퍼스에서는 인도어과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창설 10주년의 성과물을 한자리에 모으는 계기가 됐던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인도의 전통 물품을 전시·판매하고 각 학회별 중심의 학술제를 개최했다. 특히 4일(금)에는 자연대 강당에서 인도 무용단의 내한공연이 펼쳐져 많은 관심을 끌었다.

서울, 서반아어과 제15회 정기공연

서울캠퍼스 서반아어과 원어연극반은 제15회 정기공연 '봄에는 자살하지 마세요'를 무대에 올렸다.

현실사회에서 상처받고 자살을 꿈꾸는 정신병 환자들이 요양소의 한 여의사의 숭고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새삶을 찾아나간다는 내용의 이번 작품은 지난 10월 28일(금), 29일(토) 양일간 대강당에서 2회에 걸쳐 상연됐다.

서울, 제4회 맥박가요제

지난 10월 27일(목), 제4회 맥박가요제가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7백여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맥박공연, 작년 수상자 공연, 모두 10개팀의 경연으로 치뤄졌다. 이번 공연에서 최고상인 진리상은 '사랑했지만'을 부른 지성훈(상경·경제 4)군이, 평화상은 '솔직한 모습으로'(창작곡)를 부른 터울림(터어키어과 노래패)이, 창조상은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를 부른 김덕현(동양·태국어 2)군이 각각 차지했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은 맥박가요제가 갈수록 '외대인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에 대해 고민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이라는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번에도 창작곡은 단 한곡뿐 이어서 외대인의 '노래 창작능력 고양'이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줬다.

서울 영어과, 40주년 종합예술제

서울캠퍼스 영어과가 40주년을 기념하여 24일(월)부터 11월 3일(목)까지 종합예술제를 개최했다.

개막 대동제를 필두로 가요제, 동성연애영화제, 통역대학원 설명회, 하루찻집, 원어연극, 캐나다 대사 초청강연회 등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들 중 특히 '동성연애영화제'가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동성애 영화를 알린 '아이다호(My Private Idaho)'외 두 편이 26일(수)에 대강당에서 상영됐다.

이 영화제의 기획을 맡은 김미정(서양·영어 2)양은 "동성연애에 대한 인식전환을 말하고 싶었으나 '노컷(Nocut)'이라는 말이 주는 성적 호기심에 이끌려 단지 '구경'하러 온 것 같아 아쉽습니다"라고 영화제를 평가했다.

용인, 영어과 15주년 예술제

제1회 과창설 15주년 기념 영어과 예술제 '토르소(TORSO)'가 어제(7일)부터 오는 11월(금)까지 5일동안 신강의동에서 개최된다.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엔 '문학에서의 미국인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전공학회 G. M. P의 초청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강연회는 조지 시드니(Georgy Sidney) 서울대 교수가 강사를 맡는다. 9일에는 원어 노래반 뮤즈(MUSE)가 공연을 갖고 10일에는 원어연극반의 '아가씨와 건달들'이 선보인다. 또한 기간중 상설행사로 사회봉사학회 '거름마'의 사진전 및 찻집이 차려진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임용(서학·영어 2)군은 "이번 예술제는 영어과에 대한 학우들의 이해를 고양시키고 과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사의의를 밝혔다.

문화 응답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강영희 지음

문화적 현실을 하나의 전체로써 파악하는 대중문화 비평집이다.

스타들에 대한 분석과 본격적 스타론, 외국영화에 나타난 현실과 이를 통한 우리 사회 읽기, 영화와 TV드라마로 본 한국적 정서의 공감대는 무엇인가 등의 여러 문화현실을 분석하며 우리 민족정서의 원형질을 찾는다.

여러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민족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받은 상처와 왜곡을 보고, 이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를 나아가게 했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평론 · 5천 5백원)

넌 프로다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문화를 대중화시키고자 창단된 극단 '현장'이 스물 한번째 정기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제도적 현실과 사회인식이 여성에게 평등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와 타협해가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 여성들이 취업에서 받는 차별과 일에 대한 빗나간 자의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의 잘못된 영향력과 맹목적인 프로의식 추구가 여성을 얼마나 억압구조에 묶이게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일시 : 11월 9일~12월 8일 평일 4시 30분, 7시 30분 토, 일 3시,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 예술극장 한마당
문의 : 743—1266, 762—7320

□공연이야기

통일을 향한 아리랑

'95 통일호'가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에 의해 기적소리를 내며 내달린다. "나도야 여행간다. 통일로 타고 간다."

한판 춤으로 통일세상 대동의 아리랑을 연출한 민중연대와 통일을 위한 한마당 '아리랑'

이 공연은 지난 10월 22일(토)~23일(일), 두차례에 걸쳐 경희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지난 여름 폭염과 함께 민족민주진영을 덮쳤던 공안광풍을 걷어 제치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앞으로 펼쳐질 UR국회비준저지운동, 민주노총건설, 95년 조국통일운동을 준비하는 힘을 한자리에 모아내는 전국연합 주최의 문화공연이었다.

'아리랑'은 제1부 '희망을 여는 가을의 합창' 제2부 '투쟁을 일구어 온 우리의 합창', 제3부 '민중연대의 큰 힘으로 통일을 열자'로 짜임새 있게 진행됐다. 노래공연 외에도 김영삼정부의 한계와 허울을 만화로 재미있게 풍자한 슬라이드 '서울 이곳은' 상영과 시낭송, 춤 등으로 5천여 관객과 함께 했다.

<문화부>

지상 전람회— 서울캠퍼스 만화모임 '해갈' 전시회

자유로운 기법 사회의식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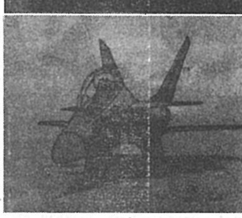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은 만화모임 '해갈'의 창작만화와 작품을 감상하는 학생들로 가을날의 스산함을 밀어냈다.

지난 7일(월)부터 진행된 이번 제5회 전시회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주제전시회로 오는 9일(수)까지 계속된다.

선보인 작품들은 주제를 담은 극화 귀환(순정만화), 시간여행(코믹만화), BIVE FACE(S·F만화)로 환경오염의 폐해—중금속 중독 기형아출생, 환경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한 투사의 노력, 질소오염으로 인한 청색증—와 심각성을 만화속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공동창작작품 3편과 개인작품(비극화)으로 개발마스코트, 일러스트, 카툰이 선보였다. 또, 찬조작품으로 이화여대, 서울여대, 경희대의 다양한 작품도 함께 했다.

전시회장에 있던 해갈 회원 박장훈군(동양·일본어 1)은 "대학만화만이 지닌 자유로운 기법과 사회문제 의식을 지닌 시사성 있는 작품을 통해 통일성 있는 전시회를 준비코자 했어요"라고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노천극장에서 작품을 전시해 길을 지나던 학생들이 부담없이 감상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고 알맞은 조명이 없는 등 이래저래 전시공간의 문제때문에 걱정속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갈회원은 전한다.



<문화부>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남·녀 대졸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문·인원 및 자격 2,200명

구 분	모 집 부 문	인 원	응 시 자 격
이공계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전산학, 수학, 물리학	1,600명	●정규 4년제대학 모집해당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 또는 부전공자로 1995년 2월 학사(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및 기취득자 ●1966년 1월 1일(석사 1964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인문사회계	인문사회계 전학과	600명	

2. 전형방법
가. 1차 : 필기시험
●이 공 계 : 영어 · 한자 · 전공
●인문 · 사회계 : 영어 · 한자 · 전공(경영학 · 경제학 · 무역학 · 법학 · 행정학 · 영문학 중 택일)
나. 2차 : 면접 및 신체검사(1차 합격자에 한함)

3.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1994년 12월 4일(일) 오전9시
나. 장소 : ● 서울지역 접수자 : 1)이 공 계 : 건국대학교(성동구 모진동)
2)인문 · 사회계 : 경희대학교(동대문구 회기동)
● 울산지역 접수자 : 울산대학교(경남 울산시 무거동)

4. 제출서류
입사지원서(당그룹 소정양식) 2통
※ 성적증명서는 추후 필기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바랍니다.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1994년 11월 3일(목)~11월 11일(금) 매일 오전9시~오후 5시(공휴일도 접수함)
나. 지원서 교부처 : 아래 교부처 접수란을 확인하십시오.
다. 지원서 접수처 : ●서울 현대인력관리위원회(비원옆 현대주택문화센타 : 지하철3호선 안국역)
●울산 현대중공업 인력개발부

6. 기타
가.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나. 우편접수자는 수험표 반송용봉투(우표부착 · 본인주소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 우송 바랍니다.
다. 현역 복무 중인자는 1994년 12월말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라.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
마. 신체장애인의 경우 전형과정상 불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바랍니다.
1994년 11월

현대그룹 '95 취업 서비스제도 안내

1 PC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현대정보기술 PC통신시스템(HiDATE)이용
HiDATE 전화번호 02)725-6824
●'95대졸신입사원 모집 안내 및 회사소개 서비스 : '94. 11. 3(목)이후
●입사지원서 송부 서비스 : 접수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시 우송
●합격자 조회 서비스 : '94. 12. 13(화) 이후 HiDATE로 조회가능

2 ARS(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
●1994. 12. 13(화)이후부터 (02)700-1998로 합격자 조회가능

3 취업설명회 서비스
●교부 · 접수기간 중 서울지역 접수처에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취업 설명회 마련(토 · 일요일은 제외)

모집회사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전자산업, 현대정공, 현대종합상사,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산업개발, 현대정유, 세일석유, 영진석유, 현대석유화학, 현대종합목재산업, 현대강관, 고려산업개발, 대한알루미늄공업,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미포조선, 현대엔지니어링, 케피코, 현대정보기술, 현대중기산업, 현대증권, 금강개발산업, 현대알루미늄공업, 현대미디어시스템, 현대투자자문, 현대물류

現代 인력관리위원회

지원서 교부처 ●서울(110-793)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비원옆) 현대인력관리위원회 02)746-3231/4 ●울산(682-792)동구 전하동 1현대중공업(주)인력개발부0522)30-2391/4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0-1 현대자동차써비스(주) 부산중부영업소051)466-4399/14 ●대구 서구 원대동 2가 69-2 현대자동차써비스(주)북대구영업소053)353-4200/11 ●광주 서구 농성동 415-12 현대자동차써비스(주) 광주영업소062)364-2111/5 ●대전 동구 성남2동 503-2 현대자동차써비스(주)대전영업소 042)624-6301/7 ●전주 경원동 3가 73-1 현대자동차써비스(주)전주영업소0652)86-5111/6 ●청주 영동 87-3 현대자동차써비스(주)청주영업소 0431)52-3911/4 ●춘천 효자1동 685 현대자동차써비스(주)춘천영업소 0361)52-4706/8 ●강릉 옥천동 159 현대자동차써비스(주) 강릉영업소0391)43-3390/3

남총련의장 구속

연행과정에서 권총사용

남총련 의장 양동훈(조선대총학생회장)군이 11월 5일(토) 1시 40분경 조선대 민주로 앞에서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됐다.

양군은 조선대 운동장에서 열린 직원노동조합 체육대회 인사말을 마치고 본관으로 올라가던 중 대기하고 있던 봉고차 2대와 승용차 1대, 형사 20여명에 의해 연행됐다. 이를 지켜보던 50여명의 학생들이 봉고차를 저지하자 형사들은 권총으로 3발의 공포탄을 쏘고, 죽도로 내리찍는 등 폭력적인 불법연행을 해서 학생들의 비난을 사고있다.

한편 지난 10월 11일에는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이화석 경사가 학원사찰 중 학생들에게 발각되었다.

이 경사의 차에서 발견된 문건들 중에는 학생회활동 상황뿐만 아니라 이사장, 총장, 보직교수들까지 사찰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학교 교무처장 이성백, 학생처장 최준식, 사무처장 류구선, 기획처장 양형일 교수등이 공개사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남경찰청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

또한 문건중에서 95년 총학생회선거 때 특정계열을 부추겨 특정계열을 거세해야 한다는 학생회 선거전략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제사회주의자 구속

본교출신 3명 포함

지난 10월 15일 서울, 부산 등 전국각지에서 국제사회주의자 36명을 긴급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6시에 이들의 자취방이나 집을 급습하여 노조파업선동과 혁명정당 결성기도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했다. 이들중 26명은 구속됐고, 외대출신의 정원현(서울 무역89, 제적), 김동철(서울 무역89, 제적), 이택규(용인 중국어과87, 제적)등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단국대와 시립대를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져 모금과 서명, 규탄대자보 활동 등을 진 행중에 있다. 또한 영국(SWP), 호주(ISO)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국제사회주의 단체에서는 '남한사회주의 방어특별위원회'를 조직해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 연대'라는 신문을 통해 이번 구속에 대해 "보복 살인지에 대해 경찰 1만명을 동원해 추적하던 바로 그날 잡힌것은 우리였다. 하룻밤 사이에 36명이 잡힌것은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경찰의 상당수가 운동권에 대한 기획수사와 끈질긴 추적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민의 실체이다"라고 논평했다.

강릉대 총학생회후보

테러 매년 계속돼

지난 10월 28일 강릉대에서는 총학생회 선거 후보등록을 하러가던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자주적학생회의 기치를 내걸고 후보등록을 위해 학생회관 계단을 오르던 최승훈(정 : 경영 88), 김일기(부 : 전산89)군이 정체불명의 시내 조직 폭력배 10여명에게 둘러싸인후, 가스총을 맞고 등록서류를 탈취당했다.

이 사건은 91년도까지 학교당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던 지역동문 중심의 텃새와 관련됐다는 것이 이학교 학생들의 주장이다. 강릉대학교에서는 88년, 89년, 90년 선거에서 강릉지역 S 고등학교 출신 폭력배들에 의한 선거함 탈취, 후보자 운동원 테러 등이 빈번히 발생했고, 93년도에는 이학교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이들로부터 테러를 당한 바 있다.

또 이러한 과정속에서 학생들의 노력으로 91년, 92년, 93년에 자주적 학생회를 건설하였으나, 94년 선거에서 위의 S고등학교동문을 중심으로 한 후보가 학생회장에 당선되었으며 이번 사건도 이들이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대중은 없고 선언만 남은 '변화'

총학생회 선거철, 상처는 곪아 터지고 올바른 시도는 열매를 맺는 시기다. 올 총학선거의 쟁점은 '학생회 · 학생운동의 변화'일 것이다. 작년 선거때 모색되기 시작했던 '변화'는 이제 한국대학 전체에 구체적인, 현실적인 변화의 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본보에서는 작년 선거에서 '제3세대 학생운동' '신운동권'을 표방하며 학생운동의 변화를 내걸었던 서울대와 연세대의 총학생회 1년사업을 간략히 평가 하면서 학생운동의 변화의 원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짚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3세대 학생운동' 서울대 총학생회 평가

서울대 총학생회는 그 누구보다도 학생운동의 '변화'를 전면에 제기한 킹메이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내세운 구호를 요약해 본다면 제3세대 학생운동, 학원개혁, 생활 속에서 진보창출 등 세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린다면 '신학생(대중) 운동질서'이다.

그렇다면 과연 올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새로운 학생운동의 질서를 서울대 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외화시켰을까? 총학생회장 강병원(농경제 · 4)군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올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학우들의 의식이 다양해진만큼 그 다양성을 하나의 공통된 지점으로 모으기가 힘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학생회보다 학우들이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지만 학생회는 그것을 올바른 흐름으로 이끌기보다는 뒤쫓기에 바빴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얘기하기를 꺼려했던 '변화'를 과감하게 수면위로 부상시켰다는 점에서, 비록 구체적인 결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를 성과로 인정하고 싶다."

강군의 말은 대신 알맹이가 빠진듯한 다소 원칙적인 말이다. "변화를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변화한 부분은 없다. 그러나 누군가는 얘기해야 할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변화'가 아닌가"로 요약한다면 너무 인색한 것일까.

강군의 말과는 다르게 최은아(천문학 · 4)양은 올해 서울대 학생운동을 '정체성, 위기의 심화'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 최양은 "변화는 학생회가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학우대중들과 함께 할 때만이 올바른 흐름으로 창출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총학생회는 학우 대중에 근거하기보다는 상층 간부와 대학당국간의 협상을 통해 학원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말한다.

최양은 실례로 서울대 내 과학생회 체계가 거의 무너진 점과 정족수 미달로 서울대 역사상 최초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무산된점, 식당개혁 문제의 경우 대중적 이해가 걸린 문제임에도 실제로 학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결국 올해 총학생회 사업은 선언만 남은 앙상한 변화였다고 강변한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 현재 서울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선언적이고 구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이끌어 갈 주체인 학우 대중들의 이해와 욕구를 모아낼 수 있는 기층 과학생회 체계의 복구인 것이다.

강군이 말한 '신학생(대중) 운동질서' 또는 '제3세대 학생운동'의 창출은 선언의 주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만들어 가는 것임은 자명한 논리다. 그런 점에서 올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변화'라는 형식에만 매달려 정작 그 안의 '중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신운동권' 연세대 총학생회 평가

"비운동권(비권)이 아니라 신운동권(신권)이라 불러다오" 하고 말한 바 있는 연세대 31대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다양한 정치이념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연대하는 네트워크를 조직, 학생들과 친근한 총학생회를 표방하면서 출발했다. 1년동안 했던 사업을 보면 학내 현수막 줄이기 · 철거운동, 우유팩 모으기, '한국사회의 이해' 판매, 헌 교양교재 판매, 교양백서제작, 대동제 등이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굳이 새로운 운동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총학 산하 학생복지위원회에서 해왔거나 앞으로 추진한다해도 이상할 것 없는 사업들이다. 그럼 가장 변화했고, 논란이 됐던 대동제를 살펴보자. 기존의 학생회를 중심으로 행사를 벌인 대동제와는 달리 이번 총학에서는 자기내용을 가지고 대동제에 참가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대부분 다 수용했다. 그러던 중 거센 비판을 받았던 서바이벌게임도 벌어졌다.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늘어놓는 것이 학생운동의 발전일까. 직접 총학생회를 이끌었던 손양철(정외 4) 총학생회장의 말을 통해 확인해 보자.

손양철="학생회 골간 조직의 강화 연대가 이루어지고, 형식의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네트워크가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자=일반학우들의 다양한 요구를 보장하고자 했던 대동제가 학생회 강화에 기여했습니까?

"가장 아쉬운 한계점입니다. 과 · 단대 학생회 일꾼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총학을 누가 하던 연대를 못하면 실패할 겁니다."

다양한 의견 · 요구들을 과학생회부터 모아내 전체 학생회 사업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다양한 견해들을 인정하면서도 전체학생들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모아주는데 필요한 것은 통합적 가치관일 것이다. 손양철군은 지난 시기 민주화의 요구로 모아졌던 대학생들의 통합적 가치관이 이제는 변화해 '이성이 숨쉬는 대학을 향한다' 등의 극히 상식적인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지점이 어디던 간에 그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학원내 제 학생회를 이끄는 일꾼들과의 연대는 불가능하고 학생운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학생운동의 변화라기보다 학생회 주체의 변화였죠"라는 하이텔 연세대 동우회에서 만난 김형원군(ID : Kimhych)의 총학평가에서도 드러나는 점이다. 그 가치관은 학생들의 변화된 요구를 바탕으로 찾아야 한다. 그것은 기존운동의 파괴가 아닐 것이다. 대중들의 변화된 요구를 바탕으로 찾아야 한다. 대중들의 변화가 기존 사고체계ー이성 · 도덕성 · 사회를 바라보는 사고체계ー의 파괴가 아니듯이 학생운동의 변화 역시 역사성과 전통성을 계승 발전하는 것이다.

국보법철폐 시민대회

탑골공원에 천여명 모여

북ー미 3단계회담이 끝나고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급변하면서 정부의 대결적 대북 정책의 전환과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25일(화)에는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민주화세력에 대한 탄압과 대북 적대관계를 청산할 것을 촉구하는 '신공안탄압 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천만시국선언'이 있었다.

이러한 일환으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지난 5일(토) 오후 3시 탑골공원에서 '부패무능 정권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약 1천여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조용술 목사는 "인천북구청을 비롯한 각지에서의 세무부정사건 적발,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인한 잔혹한 살인사건의 빈발 현상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음을 뜻한다"며 "현 정부가 냉전적 논리를 고수하면서 반민주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재벌등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을 가속화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더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반민주 · 반통일 · 반인권의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즉각 철폐와 12 · 12 군사반란자들의 처벌과 검찰총장 사퇴, 김영삼정권 퇴진의 구호가 외쳐졌고 끝으로 명동성당까지 거리선전전을 진행했다.

이제는 풍물도 치지마라?

기자의 눈

"교수님, 이문동은 풍물패로 인한 소음공해가 너무 심한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 본 결과 5개년 계획안에 의해 고시원이 학군단 건물로 이전하면 그곳에 제 2학생회관을 짓고 노천지하에 있는 동아리방을 그곳으로 옮겨 노천지하를 풍물패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5개년 계획안은 풍물패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세계에서 풍물치는 대학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세계 어느 대학에서 풍물을 치는가? 풍물패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풍물패를 줄이는 것이다. 제발 좀 줄여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화가 오고 간 자리는 지난 10월 26일(수)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세번째 외대사랑 포럼에서였다. '학교의 5개년 발전 계획'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강사였던 본교 기획조정처장 이종윤(무역학과) 교수가 풍물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여학생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사실 서울캠퍼스에서는 부지가 좁아서 노천에서 무슨 행사를 하던간에 어느 장소에서 풍물을 치던간에 그 소리로 인해 작게는 옆 건물, 크게는 학교 전체가 홍역을 치룬다. 이것은 지난 92년 본보 '흙산의 소리'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그 심각성이 지금까지 얼마나 누적되어 왔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풍물을 치는 학생들도 이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올해 초 외대 풍물 연합회(건)를 건설해 이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올해 1학기 식대인상 저지투쟁과 관련한 협상에서 '현재 공사중인 교수 연구동이 완공되면 학교 공간 재배 치시 풍물패 연습공간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한다'라고 합의해 이종윤 기획조정처장의 말은 그 합의 사항에 정면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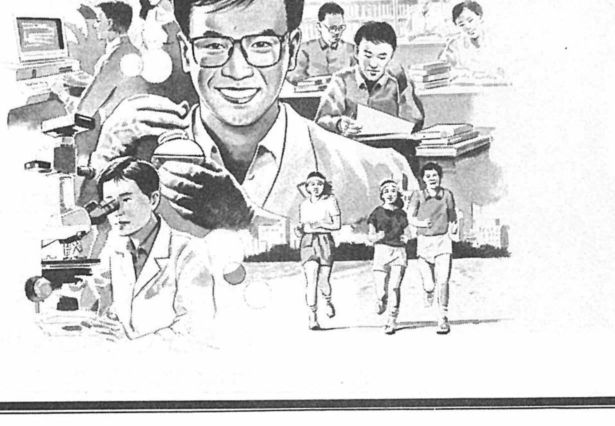
이에 대해 사범대 풍물패 '한솔밥' 패장 전예현(사범 · 영교 2) 양은 "우리가 고민해서 내놓은 안을 겨우 풍물패를 줄이라는 말로 일축하는 학교당국 관계자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다"라며 "왕산에서는 아무리 풍물을 쳐도 소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학교당국은 대학설치기준령 최저치에도 못미치는 좁디좁은 이문캠퍼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대학당국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포럼에서 오고 간 이러한 대화는 외대 현실의 일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얼마전 중앙일보에서 각 지표별의 대학별 순위를 조사한 적이 있다. 그 때도 외대는 국가고시 합격자수(9위), 상장기업 대표 이사수(8위)를 제외하고 10위안에 단 하나의 지표도 들지 않아 실망한 기억이 있지 않았던가?

얼마전 신문에서 '서울대 교수 매년 1백명'씩 충원이라는 기사를 보며 다시 한번 외대의 현실을 생각하게 된다.

<김인욱 기자>

효성은 노력하는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대졸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문

구 분	전 공	모집 인원
인문사회계 이 공 계	관련전학과	400명

2. 응시자격

1) 1995년 2월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기취득자 (대학원 출신자는 우대함)
2) 1967년 1월 1일(석사는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단, 병역특례보충역 해당분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군 미필자도 지원 가능함)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적성(인성) 검사 · 면접 및 신체검사 (2차 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일정은 1차 합격자 발표시 공지예정이며, 효성물산(주)에서는 영어시험을 실시함)

4.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당그룹 소정양식) ········ 1부
2)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 1부

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 일시 : 1994년 11월 30일(수) 14 : 00
2) 장소 : 접수처와 동일(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도 함)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1) 기 간 : 1994년 11월 11일(금) ~ 11월 18일(금) 09 : 30 ~ 17 : 00 (단, 일요일 〈11/13〉은 교부 및 접수하지 않음.)
2) 교부처

지역	교 부 장 소	전 화 번 호
서울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0 효성인력관리위원회	02) 707-7090~2
서울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1 효성물산(주) 인사부	02) 771-1100 (교환 : 808~810)
부산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89-14 (정석빌딩 6층) 효성물산(주) 부산지사	051) 463-1972~7
대구	대구시 서구 내당1동 242-1 (명성빌딩 6층) 효성물산(주) 대구사무소	053) 562-5924~6
광주	광주시 서구 농성동 652-1(광주상공회의소빌딩5층) 효성물산(주) 광주사무소	062) 362-1175 363-1176
대전	대전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11층) 효성물산(주) 대전사무소	042) 532-2180~2
울산	울산시 남구 매암동 588 동양나이론(주) 울산공장 인력관리부	0522) 78-7142~5
창원	창원시 내동 창원기계공업기기 A-1지구 효성중공업(주) 창원공장 노무부	0551) 68-2042~4

3) 접수처 : 서울지역 교부처와 동일 (우편으로 접수코자 하는 자는 "효성인력관리위원회" 앞으로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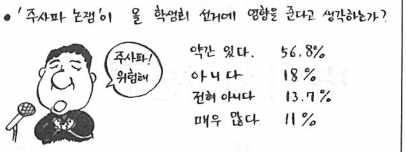
7. 기 타

1) 우편접수는 마감일 17 : 00까지 도착된 등기우편에 한하여 접수함.
2) 군 현역 복무중인자는 '94년 12월말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3)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효성인력관리위원회로 문의바람. 전화 : (02) 707-7090~2

효성인력관리위원회

□신공안정국이 올 학생회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학생운동의 위상

다양한 요구에 뒤쳐진 학생회



궁극적으로 학생회 약화를 겨냥했던 신공안정국이 올 학생회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학생들은 학생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양캠 각각 85명씩 총 1백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요구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되고 더욱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가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지 내용은 전반적인 학생운동에 대한 견해, 우리 학생회에 대한 친근도와 바라는 바를 묻는 것으로 나뉜다.

전반적인 학생운동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현 학생운동이·어느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수의 학생이 학생운동의 변화를 제기했다.

공안정국이 올 총학생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많은 수가 '약간 그렇다'(본교 91명)로 답했는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본교 1백9명) 중 대부분이 주사파 자체의 실존여부보다는 학생운동의 친북성향등 학생운동의 성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아니다'도 "총학생회 선거에 사상적 경향은 중요하지 않고 공약의 정책이 중요하다"와 "기존 학생운동이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대답을 해 올해 총학생회 선거는 신공안정국과는 별 관계없이 학생들이 느끼는 총학생회의 문제점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결과 학생운동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고 통일등 몇 개의 사업에만 너무 치우쳐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통일에 관한 4, 5번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학생들의 요구가 다양해졌다는 것은 2번과 3번 문항에서도 알 수 있는데 학내복지와 교육재정 확보, 교육시장 대책마련 등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운동과 학사제적제도 철폐 등 여러 부분에 대해 학생운동이 담당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통일운동, 국가보안법 철폐 등 사회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학생들은 직접 자기가 상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강하며 사회적 문제를 자기 자신의 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교 학생회에 관한 물음에는 학생회에 별로 친근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며 학내의 열악한 상황에 기인, 학생회가 학내발전을 위한 노력에 좀더 힘을 기울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생회의 친근감을 묻는 질문에 서울·용인 모두 과학생회에는 어느 정도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대학생회와 총학생회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단대와 총학생회가 과학생회에 비해 학생들과 동떨어져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학생회 사업이 학우들의 요구를 잘 받아안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학생회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과 중간다리를 이어주는 간부들이 학우들의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지 못함으로써 학우들의 생활적인 불편함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에 대한 물음에는 대부분이 외대발전과 교육내용의 향상 등 학교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을 꼽았다. 서울 캠퍼스는 학교이전등 장기적 외대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졌고 용인 캠퍼스의 경우는 교통편 증대와 학교시설의 확충 등의 단기적인 외대발전에 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 지역학 도입과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1백3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어문계열이 많은 본교에서 가장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임을 학생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 몇개 사업에만 너무 치중

본교 학생회 교육내용 향상과 외대발전에 더욱 힘써야

설문문항(응답자 170명, 총 질문수 9문항)

1. '주사파 논쟁'이 올 총학생회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①매우 그렇다 (11%)
②약간 그렇다 (55%)
③약간 아니다 (18%)
④매우 아니다 (13%)

1-1 '그렇다'쪽에 대답했다면 이유는?
①주사파가 학생운동권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22%)
②주사파의 실존여부 보다는 현 학생운동의 성격에 문제가 있으므로(78%)

3. 학생운동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담당해야 할 분야는?
①학내복지(35%)
②교육재정 확보 등 정부차원의 교육개혁 촉구 운동(31%)
③학사제적제도 철폐, 학생자치권 확보 등 학원민주화(17%)
④사회 각 분야 전문가 양성(5%)
⑤반미투쟁(1%)
⑥통일운동(5%)
⑦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생활고 해결(0. 4%)
⑧국가보안법 철폐 등 사회민주화(4%)
⑨교통 및 환경문제 등 시민운동(5%)

5. 95년에는 '범민족대회'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①민족대단결을 이룩하려는 자리이므로 정부가 범대회를 허가해야 한다(22%)
②정부가 모든 민간통일세력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가 되야 한다(26%)
③정부와 대립하면 치루지 말아야 한다(37%)
④북에게 이용당할 우려가 크므로 폐지돼야 한다(15%)

6. 각 학생회에 대한 친근도는? (평균)
①과학생회(57%)
②단대학생회(29%)
③총학생회(18%)

7. 만약 학생회가 친근하지 않다면 이유는?
①학생회 사업중 우리의 요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많으므로(31%)
②우리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너무 부족하다(16%)
③학우들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할일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리감이 큰 요인이다(24%)
④학생회 일꾼들이 일반학우들의 생활공간에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24%)
⑤학생회 일꾼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3%)
⑥기타(2%)

8. 본교 학생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이 있다면?
①등록금 인상 저지, 교육재정 확보 등—서울(14%), 용인(18%)
②외대발전 장기계획 합의와 추진(학교이전, 양캠 통폐합) (18%), (10%)
③외대발전 단기계획 합의와 추진(교통편 증대 등) (10%), (21%)
④교육내용 향상을 위한 노력(지역학 도입등) (23%), (18%)
⑤사회정치운동(쌀수입 반대 등) (14%), (3%)
⑥통일운동(북한바로알기 등) (3%), (9%)
⑦외대인의 화합을 위한 노력(체육대회 등) (7%), (6%)
⑧학술분위기 쇄신을 위한 노력(다양한 강연 개최 등) (15%), (17%)

□민주노총이란?(1)—제기배경

일천만 노동자가 하나되는 길

지난 5월,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의 행보로 해서 노동계의 초점이 되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핵심 산하 연맹인 철도연맹의 대의원대회장에서 있었던 기묘한 장면의 하나. 대의원대회 초내빈소개의 시간에 사회자가 "윤선생님 오셨습니다"고 소개를 올렸다. 그런데 박수가 나오지 않았다. 소개받은 윤선생은 철도노조를 담당하는 안기부 수사관이었다. 매일 철도노조 사무실을 자신의 업무대로 방문했던 그를 사회자가 대회장에서 발견한 것이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소속조직의 계율을 어기고 나서서 인사할 수도 없는 노릇. 그는 재빨리 대회장을 빠져나갔다.

이것이 오늘 우리 노동계의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50년 동안 유일합법 노동조직임을 자부하는 한국노총의 조합활동이 어떠할 지 이 하나의 사건은 가르쳐 주고 있다. '전기협은 빨갱이 조직이다'. 철도노조에 속한 최대 부문조직이고, 7천여명이 소속된 전기협에 대해, 노총의 핵심임을 자부하는 철도노조 간부들이 공공연히 밝히는 소신이다. 이러한 노총을 개혁할 수 있는가. 지난 70, 80년대를 통해서 노동계의 독특한 지위를 보장받은 한국노총의 관료 지도부를 청산하지 않고는 없는 일이다.

또한 이런 인적 구조를 생산해 내는 제도적인 문제 역시 작은 것이 아니다. 노동관계법, 한국노총에 대한 매년 1백억 원을 넘는 정부지원(물론 정부지원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스스로 서고자 하지 않는 조직이 정부의 지원으로 조직을 연명시켜가는 현실이 문제다). 이런 판단이 오늘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으로서 '민주노총' 건설을 노동계의 당면 과제로 내세우게 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지난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모색돼 왔다.

87년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건설, 노동법 개정투쟁, 전국노동조합협의회·업종회의·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 건설 등으로 이어져온 민주노조 진영의 지난 발자취는 이런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명백한 한계를 절감해 온 과정이기도 하다. 여전히 기업별 조직구조하에서 전노대의 산하노조에 대한 조직지도는 '3자 개입'이 되고, 노동자들의 집단적 발언권은 전혀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 "전국적 조직화, 그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첫걸음 없이 어떤 대응도 불가능하다". 지난 8년여 민주노조운동을 통해 단련된 노동운동의 주역들은 지금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 민주노총의 주요한 추진 주체는 전노대이다. 42만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전노대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한계인 기업단위별 분산과 전국적 결집의 부재현상을 일거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주요 민간 대기업 노동조합들의 노총탈퇴 흐름을 주도하면서 민주노총의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현재 '민주노총 추진위운회'를 전국 1천 1백여개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합의로 출범시켜놓은 상태이고 다가오는 11월 13일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 건설일정을 공식화 할 것이라 한다. 그 공식출범 예정시기는 내년 상반기이다.

이것이 지난 50년 우리 노동계의 유일노총체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새로운 길의 개척임은 분명하다. 그 성취여부는 남겨진 대목이지만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냉엄한 산업사회에 대한 근본적 반성, 사회개혁의 새로운 주체형성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물음까지 담겨져 있다.

노 민 영
<'우리네 일터' 편집차장>

외대만평

시론

대책없는 개방, 경제식민지화

지난해 12월, UR협상이 타결된 이후 필자는 농림수산부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 정부측에 미국, EU, 일본의 'UR 의회비준 동향'에 대해 질문을 해왔다.

UR협상의 최대 수혜국인 이들의 국회비준동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답변은 "8월 안으로 처리될 것이 예상된다", "10월 안으로 처리될 것이 예상된다"고 했다. 아마 또다시 질문을 하면 "올해 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할 것이다. UR협상의 최대 수혜국들이 비준을 안하고 우리 정부는 가장 먼저 나서서 국회비준을 강행처리 하려는 태도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까?

지금 선진국들은 자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와 관계 법령을 마련하기까지 국회비준을 미루고 있다. EU는 UR이 타결되기 전인 92년부터 이미 '공동농업법안'을 개혁하여 5년동안 농가소득 직접 보상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프랑스 등 회원국들이 UR비준을 각국별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EU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이다.

김 영 진
<민주당 국회의원>

협상을 주도해 온 미국의 경우 UR협상 타결로 향후 10년간 4백억 달러의 세수 손실 보전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비준이 어려운 실정이며 11월부터 중간선거에 돌입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행법안 년내 처리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소비자단체, 시민, 종교, 환경, 농민단체들이 95년 7월까지 UR비준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신속처리 절차에 의해 일괄 비준할 것이 아니라 사안별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상원 농업위원회는 내년초 제출이 예상되는 새농안법의 내용에 농업육성지원 및 농민보호 의지를 담지 않을 경우 UR비준안을 거부하겠다고 클린턴정부에 전달해 놓고 있다. 또, 미행정부 관리조차 UR비준안에 위배되는 슈퍼301조를 고수하겠다고 나섬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은 UR협상문의 내용을 곧이 곧대로 지키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일본은 92년에 발표된 신정책(새로운 식료, 농업, 농촌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업보호와 농민을 위해 이러한 제도와 법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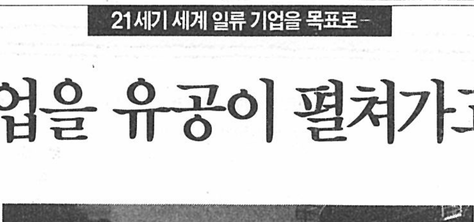
더군다나 UR비준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미국등 선진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뒷짐만 진채 미국등의 압력에 못이겨 조기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물론 비준시 우리 농업에 대한 보호정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말이다.

UR은 물건너 간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목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환경-관심에서 실천으로

21세기 세계 일류 기업을 목표로-

이 모든 사업을 유공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손으로 직접 석유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유공은 해냈습니다. 1985년 마리브 광구에서 1990년 이집트 북자파라나 광구에서, 그리고 최근 개발된 리비아 광구까지 유공은 해외 유전개발을 통하여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걱정없는 미래사회, 유공의 목표입니다.

고도의 정제기술로 고품질 휘발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힘들여 개발한 소중한 석유를 유용하게 정제하고 있습니다. 하루 61만배럴의 원유정제 능력으로 국내 석유수요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유공은 제1, 2기 중질유탈황·분해시설과 같은 시설고도화를 통해 깨끗하고 질높은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윤활유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로 유공은 석유의 유용함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가스에서 대체에너지까지 더욱 좋은 에너지를 생활에 전합니다.

에너지원의 다각화를 위해서 유공은 세계 최대 규모의 LPG인수기지를 갖춘 유공가스를 통해 국내 가스 수요의 36%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5개 주요도시에 도시가스사를 설립, 가스 연료의 보급과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스에서 대체에너지까지 유공은 더욱 편리하고 깨끗한 청정에너지를 생활속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가진 첨단화학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산 55만 5천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고있는 유공은 기초유분, 용제,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다양한 생활용품과 산업용품의 핵심이 되는 화학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욱 좋은 원료로 더욱 기능이 강화된 특수고분자,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대덕연구소를 비롯하여 울산연구소, 인천고분자연구소

그리고 미주 R&D센터의 연구원들은 첨단화학에의 도전을 계속합니다. 다양한 첨단화학제품의 개발로 미래의 풍요를 유공이 만들어 갑니다.

미래를 앞당기는 새로운 에너지,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유공이 고도의 정보시대를 열어갑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VAN, DB정보통신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SI사업은 물론 이동통신 사업에 이르기까지 고급의 정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보 고도화를 통해 미래로 앞당기는 일 유공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받은 고마움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환경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169명의 환경전문가, 그리고 지난 10년간 오직 환경 하나만을 위해 4천4백 56억원을 투자하고 있을만큼 유공은 환경보호에 적극적입니다. 빈틈없는 환경설비, 저공해 환경제품, 종합적인 환경서비스사업, 그리고 독자적인 환경기술의 개발로 유공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앞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종합에너지·종합화학의 미래
(주)유공
SUNKYONG 鮮京그룹

외 대 학 보

제634호 1994년 11월 8일 (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자명종

변화와 편견

유 세 종
<중국어과 강사>

세상의 만물은 모두 변한다. 정지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단단한 물체도 그 내면과 외면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끝없이 계속 일고 있다. 물(物)의 속성(屬性)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한정된 시각과 상대적인 시간대 안에서 보았을 때 정지돼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사람도 물(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여타 사물의 변화와는 다르다. 다른 사물의 변화가 물 자체의 속성과 객관적 조건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사람의 변화는 목적의식적이다.

인간에게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를 목적의식적으로 계획한다.

독서행위도 목적의식적인 행위의 하나다. 한 권의 책을, 한 줄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만은 않다. 걸림돌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앞으로의 진행을 방해한다.

그 걸림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게 마련인 편견이란 괴물이다.

자라온 교육환경, 개개인의 생활체험, 그가 속한 사회적 문화의 배경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만들어낸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력과 그에 맞는 안경을 쓰고 있다. 이 안경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안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편식된 교육내용에 의해 형성된 편견과 특수하게 경험한 자기체험을 성급하게 일반화시킨 데에서 오는 편견, 그가 속한 사회의 정치적·문화적 경향이 빚어낸 편견, 개인의 성격적 특수성에서 온 편견 등등이 안경의 곳곳을 얼룩덜룩하게 물들이고 있다. 그래서 편견으로 얼룩진 곳으로는 빛이 심하게 굴절돼 들어오거나, 아예 반사하여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 어른일수록, 자기주관과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편견의 얼룩은 두텁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는 아무 것도 새로운 빛이 통과할 수가 없다. 다양하고 풍부한 빛을 골고루 받아들여야 균형있는 발전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은 내가 통과시키고 싶은 빛만 통과시킨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짙은 편견과 불균등한 변화의 계곡으로 걸어들어간다.

내 몸의 일부분처럼 붙어 있는 안경을 벗기란 매우 힘들다. 어떤 대상이나 글의 내용에 대하여 거부감이 일어나면, '옳구나, 내가 이부분에 편견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한발 물러선 뒤,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선입견을 죽이고 끝까지 읽어 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읽고 사람을 읽는 행위와 같다. 폐쇄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안경을 쓰고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람들을 바로 볼 수가 없다. 독서의 즐거움은 무한한 변화로의 여행에 나 자신을 개방시키는 것이다.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도 가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먼저, 나도 모르게 쓰게된 편견의 안경을 벗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 삶의 모습이, 늘 만나는 옆사람의 모습이, 책속의 가보지 않은 길들이 선명하게 꼬임이 없이 똑바로 비친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된 시각이나 지식, 사유의 방식, 성격 등등을 조금씩 서서히 변화시켜준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즐겁고 재미있는 변화로의 긴 여행이다. 이 여행의 자격은 '편견의 안경'을 지불하고 받은 '열린 마음의 자세'이다.

때이른 눈보라

○… '불온선전물 수거' 플랭카드의 출처는?

크로니클자, 궁금함을 참지 못해 출처를 찾아낸즉, 이문파출소에서 공문이 날아와 학생처에서 걸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한 흙산 왈, "냉전시대에도 국제화를 대비해 동구권 언어를 가르치던 학교가 탈냉전 시대인 지금에 와선 캠퍼스에 눈보라를 몰아치게 하는군. 걸게 많아도 좁아서 못거는 통에…"

○…우리나라 상공에 가미가제가 떴다는 소식에 크로니클자 알아보니.

"일본의 아시아 침략은 아시아를 열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해방전쟁이다"라는 망언이 바로 그것.

특히 이번에 뜬 가미가제는 전통이 깊다는데, 그 망언의 주인공 하시모토 장관의 외조부는 일제시 창씨개명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하시모토씨. 당신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걸 아시는지….

크로니클

○…도둑질도 크게 하면 죄가 안 된다는 말을 새삼 실감나게 하는 일이 벌어져.

무슨 얘기인가 하니 상관을 구타한 병장은 7년형을 선고받고 상관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노는 면죄받았단 이야기.

매일 군기강확립이니 도덕성 회복이니 외치면서 정작 반란수괴에다가 한탕주의를 만연시킨 주범들을 용서해 주면 무슨 효과가?

○… '할 말은 하고 산다'…

요즘 모의원의 이 한마디때문에 여론이 뒤집어졌다는 데.

크로니클자 알아보니 여당의 노의원이 불쑥 이런 말을 꺼내며 집권당이 친북세력을 기용한다는등 폭탄선언을 했다고.

박홍총장의 공안시대도 이미 갔고, 바야흐로 평화협정을 바라보는 시기에 뒷북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소문이 파다.

어르신네! 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자꾸만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범하시나요?

○…오른쪽다리 고치려다 왼쪽다리 잃을 뻔한 기가막힌 사건하나.

학교 어르신네들께서 양재―분당―모현을 잇는 좌석버스를 개통해 주겠다고해 흙산들 귀가 좋긋.

아니나 다를까, 대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입제차량을 없앨 생각으로 그런 감언이설을 흘리셨다는데.

귀신이 돼 지옥까지라도 좇아가 명하겠음― "내 두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 교육개방의 광풍이 몰아친다.

3.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전망과 예상진출형태

연합 프로그램 운영이 주 형태

외국유학행, '줄줄이 사탕'될 우려

<표> 우리나라 대학교육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개혁 대책

구 분		특 징	형성원인	대 책	정책방향
주 요 측 면		만성적 초과수요 존재	과도한 학력간 임금격차, 입사·승진 등에서의 학력차별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 학력차별 철폐	과열입시 해소, 시장규모 축소
공 납 측 면	대학교육환경	열악한 교육환경, 지급한 교육내용	교육재정 빈약, 사학재단의 무분별한 영리 추구	교육재정, 확충, 부패한 사학재단 외국·공립화	교육개혁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교육서비스의 내용	대학간 특성이 없음(단일 품목 대량생산 체제)	서구교육의 모방 복제	대학별·지역별 특화체제 갖춤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대학조직의 문제	열악한 교권·학습권, 조직의 비효율성	사학재단의 천민자본적성격, 내하조직의 관료주의화	사립학교법등 교육악법개정, 교수강의평가제 전면 실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하는 '대학교육' 5·6호 특집기획으로 실린 '우루과이 라운드와 한국대학'에서 박정원(상지대, 경제과)교수가 기고한 '우리 대학교육시장의 구조와 대책'이란 논문 중 박교수는 우리 대학들이 대외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기 전에 UR차기협상이 개시돼 대학교육시장의 개혁에 관한 논의조차 제대로 못한채 개방이 가시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박교수는 전 교육주체들의 공동대책기구 수립과 범국민적인 여론조성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이 코앞에 닥쳐왔다. 교육은 한 나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포함한 문화적 가치를 실어나르는 매개물이다. 이러한 매개물이 상품으로 변형되어 '국제화'물결속에서 국내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TV에 미국의 프로가 한글 자막이 붙어서 영어로 그대로 방영되는 마당에, 무슨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걱정이냐고 반문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대책없는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은 교육을 통한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침투와 국내교육 기관의 자생력 약화와 함께 교육과 문화의 식민지화를 더욱 심화·확대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대자본과 축적된 기술을 등에 업은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진출하려고 군침을 흘리는 이유를 국내의 열악한 교육시장 현황에서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시장 규모가 2조5천억원에 달하는 학원이 외국교육기관의 첫번째 타겟이 될 것이다. 4만9천 8백여개의 학원(93년 6월말 현재) 가운데 85%가 자가건물이 없는 영세학원이며, 평균 수강생수는 64명, 평균 강사 고용규모는 1.9명(전체 학원의 65%가 3명 미만의 강사 채용)으로 그 교육여건도 지극히 열악하며, 시설이 낙후되고 경영도 비전문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막말로 '내돈 내고 내가 배우는데'(수익자 부담) 대규모 자본과 최신시설, 경영 노하우 그리고 각종 특혜를 내세우고 들어오는 외국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에 자식을 보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부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즉 엘리트 계층을 서구 성향적으로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외국교육기관과 자본의 주요 공략대상이다. 우리사회에는 학력간 임금격차와 차별화가 극심하고 학벌위주의 가치관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 경쟁은 치열하다. 학생수가 1,500% 늘었는데도(1960년 10만여명, 1992년 1백50여만명) 대학은 진학희망자의 1/3만을 수용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이 교육시설, 교수인력, 교육재정 등 모든 면에서 국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적으로도 교육부 설정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우리사회는 외국고등교육기관과 외국학위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시내 유수대학들이 외국학위 소지자를 신규채용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는 것을 보라!), 철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사립대학 지원자가 교육환경이 더 좋고 더 매력적인 혜택(외국 본교로의 진학보장 등)을 제시하는 외국대학으로 당연히 이동해 갈 가능성이 그만큼 더 큰 것이다.

그러면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예상진출 형태는 어떠할까?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고등교육기관에 한정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유형은 크게 △대학 신설(국내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거의 불가능) △분교설치(합작투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됨) △연합프로그램 운영(합동 연구실험실 운영, 공동학위 프로그램 운영, 프렌차이즈 협약 등) 등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분교설치는 '엔고 현상'에 의해 일본이 부동산 투기 형태로 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연합프로그램 운영은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배적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연합프로그램 운영은 각 과정의 일정한 기간을 현지 본교에 가서 강의를 듣게 하거나 분교에서 일정한 과정을 마치면 희망학생에게 본교유학을 허용하는 유인책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형태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외국 고등교육기관이 국내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염불)보다는 자국으로 국내학생을 흡수해 가는 유학알선과 소개를 하는 일(젯밥)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 거 용
<민주화실천을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책부위원장>

□82년 개방된 일본의 교육시장 현실태

30여개 분교설치, 백여개 준비중

80년대 일본의 국가목표는 현 김영삼 정권의 슬로건처럼 국제화였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역흑자로 인한 마찰을 해소하고 부동의 경제대국을 구축하겠다는 국가 전략으로 대학교육시장 개방이었다.

현재까지 30여개의 미국대학이 일본 각지에 분교를 설치했고 1백여개 이상의 미국대학이 일본에 조사단을 파견해 분교설치를 검토중이다. 그 효시는 82년 미국의 템플대학이 일본 도쿄 신주쿠에 대학원 수준의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결과 관련, 교육 및 문화교류 확대 정책으로 미국대학들의 일본시장 진출은 확대되기 시작했다. 다음은 일본에 진출한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진출형태이다.

△미국분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독자적으로 운영될 경우(템플대와 일리노이대) △두개 대학이 연합연구실을 운영하는 경우(MIT와 일본대학) △연합학위 프로그램형태로 미국대학에서 일정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뉴욕주립대 부설 설리반 컨트리 커뮤니티 컬리지와 토야만 경제전문학교) △대학의 명칭과 학위를 빌려 사용하되,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필립스대와 교토 공과전문학교) △ 혼합형으로 한 대학의 기준에 따른 다른 기관의 교수행위를 하는 경우(콜롬비아대와 요코하마의 미국연합대)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완전독립운영기관으로 미국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경우(미시간대와 됴쿄국제대) △미국기업체나 해외주둔 미군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대학 프로그램(오키나와의 오클라호마대)

<대학부>

지난 9월 23일 교육부 '대학시장 개방연구회'주최로 열린 '대학시장 개방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김태완(계명대)교수의 주제발표 중. 김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개방단계와 수준에 대해 아래표와 같이 설정하고 교육과정과 교육기관형태는 단계별 또는 당국과 소속국 단체별 공인 비공인 여부에 따라 신중히 연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부문 시장개방 단계별 개방 수준·관련 교육과정 및 기관

단 계	개방수준	교육당국 공인여부	소속국가/단체 인정여부	경영모체	교육과정/기관형태
개방준비 단 계 (94~95)					
부분개방 단 계 (96~99)	프로그램 수준 (program base)	공 인	인정 프로그램 (accredited programs)	대 학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장·단기교육/연수/훈련) / 통신교육과정 (학위/비학위)
		비공인	비인정 프로그램 (not accredited programs)	주식회사 임의단체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장·단기 교육/연수/훈련) / 통신교육과정* (학위/비학위)
전면개방 단 계 (2000~	교육기관 수준 (school base)	공 인	인정 교육기관 (accredited institutions)	학교법인	대학 신설/분교 설립
		비공인	비인정 교육기관(not accredited institutions)	주식회사 임의단체	대학 신설/분교 설립

비둘기칠판

이문벌

■제 15회 모의국무회의

UR 감추어진 진실 이제 우리가 말합니다.
―UR과 한국경제
때 : 1994년 11월 9일(수) 늦은 6시
곳 : 대학원 104호
<행정학과 학생회>

■ㅎ니브로 첫 노래발표회

때 : 1994년 11월 9일(수) 6시
곳 : 대강당

■관현악반 제7회 정기연주회

때 : 1994년 11월 11일(금) 늦은 6시
곳 : 대강당
<외대 관현악반>

■문무일 콘서트2

때 : 1994년 11월 11일(금) 늦은 6시, 12일(토) 늦은 4시
곳 : 대학원 대강당

■감사합니다

신문방송학과 하루술집에 와주신 외대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방과>

외발추 하루술집에 보내주신 외대인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

■제1회 영어과 예술제

1994년 11월7일~11월11일
7일 ―개막식
8일 ―GMP초청공연
9일 ―MUSE공연
10일―FANTAGE공연
11일―체육대회
장소 : 신강의동 208호
<영어과 학생회>

■하루술집

예술제준비 기금마련을 위한 '독일보리술집'을 엽니다.
때 : 1994년 11월 10일(목) 오전11시부터
곳 : 외대호프
<독일어과 학생회>

■축하합니다

외대학보 52기 수습기자 박내현 양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52기 수습기자 일동>

왕산골

■로렐라이 합창단 제11회 정기공연

때 : 1994년 11월 11일(금) 늦은 5시
곳 : 자연대 강당
주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학생회, 독일어교육과 학생회
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 학생회

■찾습니다

―비행기티켓을 같이 구입할 친구를 찾습니다. 호주, 유럽 등 항공티켓을 단체로 싸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연락 : 689―6941

■외비가디 제5회 정기공연

때 : 1994년 11월 10일 늦은 6시
곳 : 자연대 강당

■취업면접집단훈련

때 : 11월9일(수), 16일(수)
시간 : PM 1 : 10~2 : 20
곳 :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학생회관 2층 30―4141)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축하합니다

무역과 94학번 박일천군의 운전면허시험 합격을 축하합니다.
<무역과 일동>

리라야! 생일 축하해. 힘차게 살자꾸나
<사학과 일동>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왕산 학생 기자실 2층 (0335)30―4112

용인, 각 단대 문화·학술제 개최

각 단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행사 열려

단대제는 각 단대의 일년 사업을 총화하는 자리이다. (사진은 독일어과 10월 축제)

각 단대의 일년 사업을 총화하고 학문적 역량을 점검하는 행사인 단대 문화·학술제가 지난 10월말부터 용인캠퍼스 곳곳에서 열렸다.

청맥제

'푸른보리, 청년의 맥'을 기치로 내걸고 진행된 서양학대 '청맥제'는 지난 1일(화) 예비역 축구대회와 청맥가요제로 막을 올렸다. 노천극장에서 열린 청맥가요제에서는 박재범(서학·포르투갈어 2) 군이 '청년의 맥'상을, 임재우(서어과 과회장3) 군이 '푸른보리'상을 수상했다. 둘째 날인 2일(수)에는 노천극장에서 서대 각 과의 1년활동을 되돌아보는 폐막식을 가졌다. 이날 폐막식은 각 과별로 특색있게 준비한 집체극 형식으로 진행됐다.

해동제

지난 10월 31일(월) 부터 시작된 동대 '해동제'는 특히 '주사연구회'사건으로 구속·수배된 학생들을 부각시키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눈길을 끌었다.

첫날인 31일(월) 에는 외국인 교수와 함께 마련한 '동대인의 노래자랑'이, '우리들의 날'로 지정된 1일(화)에는 각과 학술제가 열렸다. 해동제 마지막 날인 2일(수)에는 민속춤과 번안가요제, 새내기와 예비역들의 공연, 구속된 학생들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낭송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또 축제기간 중 동대 각과가 참여한 '예쁜엽서전'이 열렸다.

폭풍제

'7백학우들의 준비와 참여'를 기조로 진행된 동구어대 '폭풍제'는 지난 7일(월) '동구어대 사회과학학회연합의 역사'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렸다. 오늘(8일) 은 단대분리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오후 5시 어문관 206호에서 지역학 강연 및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오는 9일 (수)에는 각 학회의 발표회 및 전시회가 개최되고, 어문관 로비에서는 '구속학우 석방을 위한 동구음식 판매 및 찻집'이 차려진다. 특히 이 판매전에는 구속학생을 위한 서명과 모금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화행사로는 9일(수) 어문관 로비에서 예선전을 거친 교수들이 경합을 벌이는 장기·바둑·오목전이 펼쳐지며, 같은 날 로비에서 동구권의 불만한 영화를 상영한다.

애인제

용인캠퍼스 인문대 학생회는 '제6회 사람사랑 애인제'를 지난 10월 27일(목)·28일(금) 이틀에 걸쳐 개최했다.

이 기간중에 인문대 입구에선 최진선(인문·사학 4) 총학생회장의 영치금 마련을 위한 주점이 많은 학생들의 호응속에 열렸고, 인문대 동아리 새날문학회의 제2회 시전(時展) 및 시 낭송회가 여학생휴게실에서 열렸다.

27일에는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등 만화영화가 상영됐고, 28일 5시에 인문대 로비에서는 인문대 노래제가 열려 5백 인문인의 단결과 화합을 고취시켰다.

자연제

자연제는 지난 2일(수)에서 3일(목)까지 양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첫째날은 각 과별행사로 수학과의 보물찾기, 물리학과의 네온사인 제작, 화학과의 니코틴 추출과 s(델타)-mino-levulinic acid 합성, 전산과의 소프트웨어 전시와 게임 경진대회, 환경학과의 환경영화 상영과 사진전시, 미생물학과의 퀴즈대회 등이 펼쳐졌다.

둘째날은 자연인의 밤으로 그간 자연대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 보는 행사와 각종 공연·시상식등이 열렸다.

청년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지난 3일(목) 청년제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제에서는 경제학과 학회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토론과 사회대 영화패의 좋은 영화 상영 및 전시 등의 행사가 열렸다.

생협, 운전·영어 특강 실시

특강사업 계속 확대 방침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에서는 2학기 하반기 사업으로 운전특강·교내 영어특강·모의 토플 시험을 실시한다.

운전특강은 용인삼성·광명기아 자동차 학원에서 실시하며 비용은 1종면허가 각각 14만원·15만원, 2종면허가 각각 13만원·14만원이다. 이와함께 용인삼성 자동차학원은 본교안에 수강학생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된다.

교내 영어특강은 지난 10월 24일(월) 부터 주 5회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시사영어사의 강사를 섭외했으며 방학때는 서울캠퍼스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모의 토플 시험은 오는 3일(목) 오후 5시 45분에 실시되며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접수는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지난 10월 25일(화) 에서 오늘 2일(화) 까지 받으며 참가비는 없다. 시사영어사가 후원하는 이번 모의 토플 시험은 성적우수자 시상과 개인별 성적표가 지급되는 등의 특전이 있다.

이번 특강사업을 맡고 있는 김태현(서학·불어 1) 군은 "그동안 특강사업을 실시하려 해도 교재비와 테이프비 등을 수강료에 추가시키는 등 상업적인 면이 짙어 실시하지 못했다"라며 "요즘 이러한 문제가 없어지면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춰 실시할 수 있게 됐다"라고 앞으로 컴퓨터 특강 등 특강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구촌 한마을 지난 9월 5일(월) 착공된 CATV설치 1차공사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중이다. 약 6천만원 예산으로 공사 진행중인 이번 CATV는 시청각 교육원, 외국어 연수원, 대학본부, 대학원 4개 건물로 30개 채널의 송출시스템을 갖는다. 사진은 사범대 옥상에 설치된 위성안테나.
<사진부>

용인 동연, 교비·복지관련 질의서 발송

학교측 답변

교비부분, 전년도 기준으로 설정
복지부분, 방중 방음벽 설치

용인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활동 교비와 복지관련 부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지난 10월 27일(목) 학생처에 발송했다.

질의서의 내용을 보면, 교비관련 부분에서는 몇몇 동아리에만 치중돼 전체 동아리에는 현실성이 없는 교비지급의 무원칙성 문제와 동아리 지원 예산에 대한 것이다.

복지관련 부분에서는 현재 전혀 제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학생회관 전시실 문제, 주말 및 방학 등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도난사고의 위험성, 연행분과의 방음벽 설치 문제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학생회관 지하에 거주하는 동아리들은 습기와 환기 등 주위 환경문제와 새로 생기는 동아리들의 부족한 공간에 대한 옥상의 처방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동아리연합회 회장 이정훈(서학·포르투갈어 4) 군은 "현재 많은 신규 동아리들이 생겨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예산과 복지 문제는 최저 수준도 못미치고 있어 동아리들의 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질의서 제기배경을 말했다.

한편 용인캠퍼스 학생처는 이에 대한 답변을 지난 10월 31일(월) 동아리 연합회에 통보했다.

학생처는 답변서에서 교내관련 부분에 대해 △동아리 활동비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설정 △활동비 균등지급은 행사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 없다 라고 답변했다. 또한 복지관련 부분에 대해 △연행분과 동아리의 방음벽 설치는 방중에 가장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옥상공간의 개방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불가하다 라고 밝히고, 전시실 관리와 학생회관 지하 환기 문제 등에 대해선 △차후 관련부서와 협의후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용인 도서관 관련 학교·학생측 면담

의자확충 등 일부 단기 복지사안 해결

용인캠퍼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는 지난 10월 11일(화) 도서관 사서과장·도서관 자치위원회 준비대표와 도서관 제반상황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이는 지난 10월 6일(목) 1차로 실시된 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학생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학생측 요구사항과 면담이후 개선된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자료 대출시간 연장

=10월 10일(월) 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운영중

—세미나실 개방

=11월 1일(화) 부터 4층 세미나실을 항시적으로 개방

—옥상개방

=안전문제만 해결되면 가능

—열람실의 좌석 확충

=4층의 민속박물관을 이전시켜 큰 규모의 열람실(4백 50석, 1층과 2층의 열람실을 합친 정도)을 계획하고 있음

—도서관 금연화

=환풍기 설치는 도움이 안됨. 장기적인 방안 함께 고민해야 함.

—정기간행물의 비치가 늦다

=잡지사에서 늦게 도착한다. 잡지사에서 일찍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타

=2층 휴게실 의자 확충·설치

=시험기간중 복사기 사용시간을 늘리는 것을 업자와 상의

=식수대에 1회용 컵 설치

용인 학자추, 강의 평가제 질의서 발송

평가내용·개선방향 공개 내용 등

용인캠퍼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소속 교과과정심의위원회(교심위)는 강의평가제 실시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지난 10월 28일(금) 김민곤 부총장(물리학과 교수)에게 발송했다.

이는 강의중 드러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도를 찾아 강의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 질의서는 강의평가제 실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각 과목에 적절한 설문문항을 작성한다

△강의평가를 실시한다(형식—무기명, 실시기간 종강 2·3주전)

△교수평가서와 의견서를 받는다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교수·학생 교심위 주체가 평가를 내리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평가내용과 개선방향을 공개한다

△이것을 자료화하여 강의계획서와 함께 다음학기 수강신청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강의평가제는 외대발전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재 양캠에서는 실험평가가 실시중이며, 특히 이번 질의서는 이 실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사람

□외대사랑 94모임 총무 김영선 양을 만나

"처음들었을땐 외대발전이라는 개념이 어렵게 들렸지만 외대발전은 외대인 모두가 하나되는 것이 아닐까요?"

"외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모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개교 40주년을 맞는 올해에 들어온 새내기 94학번들의 모임인 '외대사랑 94모임'의 총무 김영선(동양·아랍어1) 양의 자랑이다.

외대의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보고 싶다는 김양은 지난 외대인의 날 행사주간에 '개교 40주년 기념사업회'에 참가했다. 그녀는 '외대사랑 94모임'의 창설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당시 40년을 맞는 외대에 갓 들어온 94학번 입학생들만의 행사를 열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는 행사 자리를 마련해 줬고, 94학번들 스스로 모든 행사의 기획과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이렇게 열린 '94 대동한마당'은 성황리에 열렸고, 이런 기회를 자주 갖기위해 '외대사랑 94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외대사랑 94모임은 현재 29개 학과의 1학년 과대표들을 중심으로 모여있으나 앞으로 더욱 폭넓게 확대·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대사랑 94모임'에서 개최했던 일일호프의 수익금으로 체육대회를 여는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김양은 자랑한다.

"학번이 같고 생각이 비슷해서인지 서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일을 해 나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어리다고 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끄는 데에서 오는 힘때문인 것 같습니다."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외발추)에서 활동하면서 외대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 김양은 외대발전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당당하게 말한다. "처음 들어왔을 땐 외대발전이라는 개념이 매우 어렵게 와 닿았어요. 아직도 잘은 모르지만, 외대발전은 모든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는게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대사랑 94모임'의 일원으로서 모든 94학번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외대발전의 생명이라며 김양은 다음과 같이 말을 맺는다.

"현재 94학번은 내년에 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나간다면 외대발전에 한 몫을 담당하고, 내년에 들어온 95학번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박일천 기자>

용인, 정보지식 초청강연회 열어

언론·통일·문학·취업 등 다양한 주제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임기중 마지막 사업으로 매주 화요일 신강의동에서 4회에 걸친 정보지식 초청강연회를 열고 있다.

강연회의 첫번째 순서로 지난 10월 26일(수)에는 주철환 문화방송(MBC) PD의 'TV를 읽읍시다'라는 주제의 강연이 약 5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또한 지난주는 통일주간을 맞아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과 이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2백여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오늘 (8일) 5시에는 현 민족연구회 대표이자 '농부', '남한강'의 저자인 시인 신경림씨의 '시와 문학'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다.

이와 더불어 15일(화)엔 연세대학교 취업담당 전문위원인 김농주씨의 '취업의 길'이란 주제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강연회를 준비한 총학생회 정책국장 조희진(서학·체코어 4) 양은 "대중적이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하려 노력했다"라며 "이번 행사가 왕산에 학술·문화적 풍토를 배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용인, 학생의 날 맞아 통일주간 선정

주체사상 관련 심포·북한영화제 등 열려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주를 통일주간으로 선정했다. 이에 북한의 풍습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북한영화제와 북한사회 바로알기를위한 공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주요 행사를 보면, 학생회관 앞에서는 북한의 의류와 주식에 관한 사진과 '뻐꾹새가 우는 곳', '대학시절'등의 북한소설이 전시됐고 '백두산'등의 북한영화가 학생회관 로비에서 상영됐다. 이와 더불어 북한산 술이 한 잔당 1천원씩 판매되고, 북미회담과 관련된 현 정세와 국가보안법·평화협정·최정남 한총련 대표 방북에 관한 교양대자보가 학생회관 게시판에 부착됐다.

한편, 지난 1일(화) 오후 5시 신강의동 207호에선 '북한 연구자들이 말하는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과 견해'라는 주제로 공개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 자리엔 김남식 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원 산하 통일연수원의 윤경태 교수, 본교 '북한 정치사회의 전개'를 강의하는 홍승원 교수(교양학부)와 '주체사상연구회' 조직사건의 변론을 담당한 장완익 변호사가 참가했다.

□학내단신

설상일군 핸드볼 골대 넘어져 부상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지난 10월 1일(토) 설상일(상경·경영 4) 군이 중상을 입고 경희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이날 설군은 축구를 하기 위해 몸을 풀던 중 비스듬히 서 있던 핸드볼 골대가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후 설군은 16시간 동안의 수술을 받고 경추손상(목뼈 3군데 골절) 진단을 받아 이후에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영학과 학생회는 학과장실 앞에서 지난 10월 26일(수) 부터 모금운동을 벌였으며 지난 4일(금) 보스턴에서 일일 호프를 개최했다.

한편 학생처장과 경영학과 학과장은 설군의 가족들에게 위로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여, 제3회 여성문화제

용인캠퍼스 총여학생회는 '우리들의 만남, 우리들의 소리'라는 주제로 제3회 여성문화제를 지난 10월 25일(화), 27일(목) 이틀간 개최했다.

행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25일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는 '어머니와 창녀'의 저자 자포니쿠스(문예창작비평동인)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여성들의 현실만을 논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올바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이어 27일(목)에는 기지촌 아이들의 놀이방과 공부방을 운영하는 '참사랑쉼터'를 후원키 위한 문화한마당이 자연대 강당에서 열렸다. 여기엔 환경학과·유고어과 여성학회와 수화동아리 '손말사랑회', '참동이사랑회'등이 참가하고 가수 최연제양이 출연해 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 총여학생회장 김민정(서학·서반아어 3) 양은 "이 행사를 계기로 기지촌 여성들에게 재정적인 도움과 따뜻한 관심을 주고 싶었다"라며 행사취지를 밝혔다.

외대사랑 94모임, 체육대회 열어

서울캠퍼스 '외대사랑 94모임'은 지난 10월 23일(월) 부터 10월 28일(금) 까지 5일동안 94학번간의 힘모으기 일환으로 체육대회를 가졌다.

각 과단위 94학번 새내기만을 대상으로 남자는 농구, 여자는 발야구 경기가 치뤄져 농구는 법학과가, 발야구는 불어과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외대사랑 94모임 대표 전창우(동양·이란어 1) 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94학번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모교사랑의 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행사취지를 밝혔다.

학군단, 94추계외랑체전

서울캠퍼스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은 지난 10월 29일(토) 학군단의 화합을 위해 94추계외랑체전을 대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위탁장교와 후보생 2백31명이 장교·후보생 각각 두팀으로 나눠 축구·배구·농구·족구 경기를 가졌다.

추계외랑체전은 체육활동을 통한 교관단과 위탁장교·후보생간의 인화단결을 목표로 매년 이어져 왔다.

명예위원장 김승진(서양·스페인어 4) 군은 "이번 행사가 사관후보생들이 학교생활의 폐쇄성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하고 서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행사의의를 밝혔다.

마인어과, 30주년 예술제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마인어과)는 지난 10월 29일(토) 부터 이틀동안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첫째날인 29일은 마인 예술제·원어연극·원어 이야기대회가 대학원 210호에서 열렸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대학원 104호에서 동문회와 대운동장에서 동문체육대회를 가졌다. 또한 이날 '동문인의 밤'을 열어 선후배간의 친목과 단결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약 1백50여명의 동문과 재학생이 모인 이 행사에서 마인어과 학생회장 임춘락(동양·마인어 4) 군은 "올해 마인어과가 3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64학번에서 94학번까지 선후배들의 유대관계를 새로이 하자는 의도로 기획됐다"라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제7회 철학인의 한마당 열려

올해로 15돌을 맞는 철학과는 '제7회 철학인의 한마당'을 5일(토) 뉴국제호텔에서 열었다.

이 날은 94학번을 중심으로 하여 노래·율동공연이 펼쳐졌고, 철학과 15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슬라이드가 상영됐다.

◉이번주는 이렇게

날짜	11/7(월)	11/8(화)	11/9(수)	11/10(목)	11/11(금)	11/12(토)
	·외대사랑 포럼 —문민정부 2년과 지자제의 의미 (이철 국회의원)	·이문 FBS 방송제 ·영화—마지막 보이스카웃 (이문동 대강당 화·목 2시) ·용인초청강연회 —시와 문학, 신경림씨 (신강의동, 5시)	·용인 초청강연회 —취업의 길, 김농주씨 (신강의동, 6시)	·왕산 총학생회 선거 정견토론회 (학생회관앞, 5시) ·외대사랑 포럼 —지역학의 개념과 현황 (6104호, 5시)	·사범대 학생회 선거	
식단 이문	버섯덮밥 참치 김치찌개	선지 우거지국 탕수육 덮밥	오무라이스 설렁탕	소고기 덮밥 순두부찌개	하이라이스 두부된장찌개	
왕산	잡채밥	설렁탕	김치볶음밥	닭곰탕	산채비빔밥	돈까스

□만화평－'슬램덩크'를 읽고

다양화된 주인공들의 진지한 덩크슛!

농구의 붐이 일고 있다. 불과 몇년전까지 별로 아는 사람이 없던 NBA(미 프로농구)가 이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농구전문잡지가 잇따라 창간되고 있다. 요즘 학교에는 좀처럼 농구대가 비어있지 않다. 그것은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가지고 온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미프로 농구는 미국의 신형자본의 첨병이다. 굳이 슬램덩크가 없어도 전세계의 이목을 끌어왔었다. 이제는 스포츠에서 '쇼'로 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견해도 있으나, 역시 보는 이들은 그 쇼와 같은 화려함을 동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램덩크가 없었다면 국내의 농구붐은 몇년을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른다.

80년대 등장인물의 기본도식 까치(주인공)－엄지(사랑하는 여자)－동탁(숙적)의 구도가 변한것은 시대의 변화 탓일까? 슬램덩크의 강백호－채소연－서태웅의 구도는 과거와는 달리 주인공에의 집착력을 분산시킨다. 강백호가 여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태웅은 과거의 마동탁이 갖고 있었던 미움의 대상으로서의 상대인물이 아니라 또 하나의 주인공 상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주인공이 속해있는 고교 농구팀은 진지한 사내들로 구성되어 있다. 농구부 주장으로 3년동안 전국대회 진출의 꿈을 가슴에 간직해 온 진지한 리더 채치수, 과거의 영광과 방황에서 다시 자신이 가장 열망했던 농구로 돌아오는 정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말없는 서태웅, 농구에 있어서는 역시 충실한 송태섭, 이 숨막히는 구도에서 주인공은 바보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80년대의 스포츠 만화에서는 이런 극적 구조에서 주인공은 좀더 진지하고 어두웠을 것이다. 그는 극적 긴장을 풀어주는 동시에 긴장을 고조시키며 지배해 가기도 한다. (강백호가 단순히 주인공으로서가 아니라 한 등장인물로서 매력을 풍기는 것은 그 탓이 아닐까) 그러나 그도 늘 바보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농구에 눈을 뜨면서 서서히 자신의 실력한계를 인식하고 진지해지고, 때로는 패배감도 맛본다. 그리고는 다시 알수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이것이 신세대의 모습인가.

과연 슬램덩크는 주인공의 비중을 분산시키고 기초를 다양화시키는 화려한 상품이다. 분명히 까치는 80년대의 시대적 산물이고 강백호는 90년대의 시대적 산물이다.

슬램덩크는 사실 농구전문 스포츠 만화이다. 내용에서 삼각관계라든지의 남녀관계는 양념에 불과하고, 한 경기가 2－3권에 걸쳐 전개될 정도로 그야말로 농구자체에 충실한 만화다. 그러면서도 속속 등장하는 인물들의 과거얘기, 꾸준한 땀, 그 안에서의 진지함이 엿보인다. 무리하게 도식적으로 고조시키는 감정도 아니고, 쉽게 보이지 않는 눈물(억지로 참아 삭히는), 또한 엉성하게 급격히 떨어지는 좌절의 눈물(다분히 통속적인)도 아닌 그 나름의 순수한 눈물이다. 안타까움의 눈물이고 그들이 몰입하는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와 감정표현이다. 좀더 어리고, 여리고 솔직해졌다고 할까. 80년대의 패배는 곧 죽음이었고, 극복은 고통의 수렁이었다. 그러나 90년대의 패배는 실력이 없으면 당연한 것이고, 그만큼 흔하고 또한 극복도 빠르다. 어쨌거나 이 만화가 말하는 것은 그렇다. 이 새로운 만화 세계엔 고립이 있고 무모함이 있으면서도 실속이 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하다 싶을 때 동료에게 맡기는 현명한(?) 선택도 있다. 그곳엔 고독이란 없다. 그때의 조건에서 최선으로 몰입한다. 그뿐이다. 과거의 세대가 조용필에 열광하고, 까치에게 빠져 있었다면 새로운 시대엔 다양한 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80년대 극복의 대상은 '아버지'라는 세대였다. 주인공이 그토록 뛰어넘고 싶어 반항했고, 또 그러나 사랑했던 상대는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그러면서도 가엾은 아버지의 세대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도전이 있다. 이제는 그 대상은 아버지에서 선배에 대한 도전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극복대상은 먼 발치에 있는 아버지 세대가 이끄는 사회가 아닌 자신이 속해있는 그 생활속에서 앞에 서있는 선배의 모습이다. 같이 하면서도 그 선배의 한계에 호통을 친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김 지 형
<인문·사학1>

이겨야 한다

파수대

내리꽂히는 스파이크 한방에 환호성은 터져 나오고 관람객의 몸이지만 마음은 이미 코트를 뛰고 있다.

서울캠퍼스에서 지난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열린 '예비역족구대회'에서.

<사진부>

□기행문－지리산을 다녀와서

해방구에서 확인한 서로의 믿음

지리산. 경남, 전북, 전남 3도에 걸쳐 있고, 한라산 다음가는 높이로 최고봉인 천왕봉은 그 키가 1915m라 하는데 굳이 수치로 나타내지 않아도 몸소 흘린 땀으로써 지리산의 방대함은 가히 짐작될 수 있으리라.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 그리고 여기서 투쟁한 역사의 흔적을 모두 찾아보기엔 3박4일의 일정이란 턱없이 짧은 것이어서 우리는 더욱더 꼼꼼한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설레는 마음속에 밤은 여전히 찾아왔고 우리 아홉명은 덜컹거리는 기차에서 남원으로가는 밤을 보냈다.

시외버스를 타고 우리의 첫발걸음의 시작인 뱀사골로 갔다. 아직까지는 '재밌는' 여행길이다. 등에 멘 배낭이 주는 약간의 무게감을, 따갑지 않은 햇살이 챙넓은 왕골모자의 틈 사이로 비쳐들어오는 산뜻함을, 새로 산 바지가 피부에 닿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들의 부딪침을 느끼면서

이 모든 자연의 조화를 깨뜨리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워지기도 한다. 점차 들어갈수록 알 수 없는 종류의 나무와 풀, 이름모를 꽃들이 서로 뒤엉켜 자라고 있다. 진정한 해방을 위해 싸우다 죽은 수많은 빨치산의 피어린 희생을 거름으로 이 숲은 이렇게 우거진 것일까?

줄지어 근 40분은 걸었을게다. 숨이 가슴께로 탁탁 막힌다. 바스락거리던 바지의 느낌도 축축해진지 이미 오래다. 살이 익은듯 온 몸이 후덥지근하다. 이런 괴로움을 달래듯 우리에게 첫휴식이 주어졌다. 몇개의 다리와 계곡을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쉴 터를 맞이했다. 맑고 깨끗한 계곡이었다. 더위와 갈증에서 몸부림치던

나는 배낭을 집어던지고 물에 들어가 벌개진 얼굴을 식혔다. 따가운 햇빛을 비웃기라도 하듯 물은 얼음장같이 차갑게 이돌 저돌 사이를 흘러간다.

"물소리는 물줄기가 장애물들과 싸우는 소리여서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장애물이 많다는 증거이다. 물줄기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부딪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휘돌고, 솟구치고, 나뒹굴고, 처박히고, 맴돌이질쳤고 그러면서도 흩어지거나 멈추지않고 하나로 뭉쳐져 끝끝내 목적하는 곳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아아, 저 물의 흐름은 혁명의 과정과 같지 않은가! 혁명에는 그 얼마나 장애가 많은가. 그 장애를 무너뜨리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그 핏빛처럼 처절한 외침을 남기고 죽어가지 않았던가. 저 줄기차게 울려퍼지는 물소리는 그들이 남기고간 함성이다. 그리고 또 살아남은 자들이 이어받아 외치고 있는 함성이다. 혁명에 이르는 그날까지 물줄기의 격렬함으로, 물줄기의 끈기로 싸워나가야 한다. …싸워나가야 한다…."

다른 봉우리에서는 운치를 자아내던 흰 안개가 장터목에 이르러서는 거센 비로 몰아닥쳐 한참을 망설이게 했다. 몸을 날려버리는 바람, 앞을 가리우는 비, 우비속을 엄습해오는 고도의 추위. 천왕봉으로 강행하는 것도 거기서 일박을 하는 것도 이런 상태에서는 그 어느것도 무리였고 그냥 내려가자니 정상을 앞두고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는 아쉬움에 마냥 머뭇거릴 수만도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행은 모두 저마다의 아쉬움을 감추며 백무동 골짜기로 쉼없이 내려왔다.

넘어지고 구르고…. 서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불안한 목소리. 부르는 소리에 대답이 없으면 이내 가슴은 쿵당쿵당 산을 울리고, 곧이어 화답이 오면 안도의 숨길이 희뿌옇게 나무사이를 가른다.

어둠이 들어차서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던 것은 '내 곁엔 나와 고난을 같이 할 선배, 동기, 그리고 후배들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오 수 진
<서양·불어 2>

□무용평－홍신자의 '명왕성(PLUTO)'을 보고

'자유를 위한' 전위의 몸짓

새로운 체험이었다.

홍신자씨의 춤 '명왕성(PLUTO)'은 시청자들의 눈요기와 흥을 돋구는 TV 쇼프로의 도발적이며 선정적인 춤과는 달랐다. 우아한 발레와도 달랐으며, 어깨를 들썩여야 할만큼 흥겨운 우리 고유의 춤도 아니었다. 다시말해 그녀의 춤은 문외한인 나로서도 기존의 춤과 다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로써 춤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은 깨졌던 것이다.

맑고 경쾌하며 반면 명상적인 음악과 함께 여덟 무용수의 춤은 시작된다. 어쩌면 춤이라기보다는 어떤 포괄적인 '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치 무언극 같기도 하니 말이다. 무용수들의 동작은 매우 느리고 불규칙적이다. 꼭 슬로우모션을 보는 것 같으며 진공속의 우주인을 연상케 한다. 각각의 무용수들의 행위는 통일성이 없다. 무대 저편에선 무용수 한 쌍이 관객에게 무언가 호소하는 듯한 제스춰를 취한다. 또 다같이 팔을 올리리라 예상했던 곳에서 각기 다른 행동을 한다. 물론 후반부의, 마치 소련병사들이 사열을 하듯 여성들이 일렬로 꼿꼿이 걸으며 자기 발밑에 누운 남자들을 공차듯 굴리는 장면에선 하나같이 일체된 모습이 엿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불규칙이 압도적이었으며 기괴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춤의 행위들은 마치 서커스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두남자의 어깨에 각각 한명씩 발로 밟고 서서 관능적인 연기를 하는가 하면 한 건강한 남자가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자신의 몸에 오르게 하는 등 손에 땀을 쥐게하는 연기를 해보였다. 무용수들의 손놀림도 특이한데 그녀가 동양적인 요소를 충분히 감안했음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행위들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그 메세지 또한 파악하기 쉽지 않다. 팜플렛에 따르면 "여인의 허구성과 남성의 우월감과 자만을 강렬하고도 격한 에너지의 응집으로 표현한다"고 했으나 마치 그 행위들은 보편적 인간의 본질을 그리는 것 같아 장엄하기까지 한 대목도 엿볼 수 있었다. 물론 나는 안무가의 이러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관람했지만 현대 예술의 특징, 특히 전위적이며 포스트모던한 특징들을 감안한다면 나의 몰이해도 용서되리라. 어쨌든 그녀의 춤은 느린 동작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빠르고 격렬한 춤보다도 더욱 강렬하고 급속한 인상을 줬으며 한시간 반의 공연 시간을 긴장과 흥분으로 관객을 지루하지 않게 사로잡았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대 예술의 한계성을 느꼈음일까. 그것은 바로 대중을 상대로 한 상업성이다. 남녀가 맨살을 교차하며 교태롭게 펼치는 행위들이 긴장의 한 요소가 아니었을까. 팜플렛의 사진은 한여자 무용수의 가슴을 드러내놓고 있는데 외국공연 때의 사진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은 한국공연에서 자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신문의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평은 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신자씨의 춤이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점은 그녀가 외래의 무용과 우리의 전통무용을 결합해 '오락성'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는 점과 홍신자씨의 뛰어난 시대감각으로 세계적 무용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것이리라.

김 형 래
<서양·독일어 1>

1995 학년도 전기 대학원 학생모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961－4104, 962－7117)

1. 모집과정 및 학과·인원
 가. 석사학위과정(5개계열 38개학과) : 각 학과 약간명
 어문학계 :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어, 이태리어, 힌디, 국어국문학, 포르투갈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유럽어문학, 언어학, 스칸디나비아어(新)
 인문과학계 : 철학, 사학
 지역학계 : 아주지역, 중남미지역, 중동지역, 동구지역, 북미지역, 아프리카지역, 서구지역
 사회과학계 :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이 학 계 : 수학(통계학전공포함), 물리학, 화학, 컴퓨터공학
 나. 박사학위과정(4개계열 23개학과) : 각 학과 약간명
 어문학계 :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어, 국어국문학, 언어학
 인문과학계 : 철학
 사회과학계 : 국제관계연구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이 학 계 : 수학(통계학전공포함), 물리학, 화학
2. 원서교부 : '94년 11월 2일(수)부터 11월11일(금)까지
3. 원서접수 : '94년 11월 9일(수)부터 11월11일(금) 17시까지
4. 시험일시 : '94년 11월25일(금) 오전 10시부터
5.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 1) 전공 2) 영어(단, 영어과는 제2외국어) 3) 구술시험
 나. 박사과정 : 1) 전공 2) 영어 3) 제2외국어(단, 이학계는 제2외국어면제) 4) 구술시험

무역대학원(야간) (961－4109, 962－7118)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00명
2. 모집학과 : 가. 경영학석사－무역학, 국제경영학, 해운경영학, 정보관리학, 보험경영학
 나. 경제학석사－국제경제학, 국제지역연구학
3. 시험과목 : 가. 석사과정－1) 논문, 외국어(23개국어) 중 택1 2) 면접
 나. 연구과정－1) 서류전형 2)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94년 11월1일(화)부터 11월16일(수) 20 : 00까지
5. 시험일시 : '94년 11월 19일(토) 오후 2시부터
 *국가공무원 및 군·경·각급학교 교직원에게 수료시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교육대학원(야간) (961－4116, 963－6881)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각 전공 00명
 어문계 : 국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서반아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러시아어교육
 인문사회계 : 역사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상담심리, 교육행정, 유아교육(新)
 실업계 : 상업교육, 전자계산교육
2. 시험과목 : 1) 필답시험(전공) 2) 면접
3. 원서교부 : '94년 11월 7일(월)부터 11월18일(금)까지
4. 원서접수 : '94년 11월14일(월)부터 11월18일(금)까지
5. 시험일시 : '94년 11월26일(토) 오후2시
 *현직교사에게는 수료시(5학기)까지 수업료의 25%를 감면함
 *초·중등학교 현직교사, 교감, 교장 및 장학사, 연구사, 교육행정직(5급이상)에 재직중인 자는 입학정원의 50%이내에서 특별전형함

경영정보대학원(주간) (961－4119, 965－7046)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각 00명
2. 모집학과 : 경영정보학과, 응용전산학과
3.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 경영정보학과 －1) 영어 2) 경영학원론 3) 구술시험
 응용전산학과 －1) 영어 2) 전산학개론 3) 구술시험
 나. 연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4. 원서교부·접수 : '94년 10월 31일(월)부터 11월15일(화) 17시까지
5. 시험일시 : '94년 11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본 대학원은 첨단학문 분야인 경영정보학과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국내 유일의 주간 석사학위과정임(대학원 전임교수 7인)

정책과학대학원(야간) (961－4093, 962－3950)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00명
2. 모집학과 : 공공정책학과(공공정책전공, 공공행정전공)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정책전공, 북한학 전공)
 신문방송학과(신문전공, 방송전공)
 광고홍보학과(광고전공, 홍보전공)－신설
3. 시험과목 : 가. 석사과정－1) 논문 2) 영어 3) 면접
 나. 연구과정－1) 서류전형 2)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94년11월7일(월)부터 11월18일(금)까지
5. 시험일시 : '94년 11월 26일(토) 오후 2시부터